
재정정보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

연훈수·최정우

2018. 12.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재정정보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

총 괄 | 박용주 재정정보연구본부장

기획·조정 | 연훈수 재정운영지원팀장

작 성 | 연훈수 연구위원, 최정우 연구원

이 책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정정보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조사(델파이 조사)를 통해 재정정보 공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음
- 재정정보 공개는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
- 정부는 재정운용방향, 재정규모, 집행실적, 성과 등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재정정보 공개 현황과 문제점 파악, ②재정정보 이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③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한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 도출로 구분됨
-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810명과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실시
- 전문가 심층조사는 학계, 정부기관, 시민단체의 재정분야 전문가 15인을 조사단으로 구성하여 2018년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회에 걸쳐 조사

[주요 연구 내용]

	주요 내용	연구방법
재정정보 공개 현황	• 재정정보 공개 관련 법률 • 재정정보 공개 정책 추진체계 • 재정정보 공개 방식 • 재정정보 공개 주요 포털 분석 • 재정정보 공개의 주요 문제점	• 문헌조사
재정정보 이용 현황조사	• 국민(810명), 전문가(156명) 대상 재정정보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재정정보 이용 현황, 포털 이용 현황, 재정정보 개선사항 등	• 설문조사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 분석	• 전문가 15인 대상 재정정보 공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 재정정보 공개 확대, 재정정보 제공방식, 열린재정 개선방안 등	• 델파이 조사

2. 재정정보 공개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재정정보 공개 제도는 관련 법률이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정보공개포털 역시 부처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기금, 국채, 통합재정수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 포털인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재정운용 상황, 공공기관 예산집행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관련 계획 수립 및 정책추진을 담당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365, 공공데이터 포털을 운영
- 교육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재정 관련 정보를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공개

[재정정보공개 포털별 비교]

구분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주요 정보	중앙재정 관련 dBrain생성정보 등	지방재정 관련 e호조 생성정보 등	지방교육재정 관련 에듀파인 생성정보 등
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이용 총괄)	교육부
운영근거	국가재정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법 제60조

-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되었던 현행 재정정보 공개의 주요 문제점은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 이해도 부족, 공개자료 부족 등이 있음
-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대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개정보 간 연계 정도가 낮고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내용, 사업별 세부자료 공개 확대 등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의 제기
- 공개대상 및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모호한 기준 및 기관별 상이한 공개방식에 따른 불편
- 정보생성시점과 공개시점 간 시차가 커 적시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

3. 재정정보 이용현황에 대한 일반국민·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 재정정보에 대한 인지여부 조사결과 일반국민은 41.1%(333명), 전문가 집단은 87.2%(136명)가 재정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노출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예산규모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문항의 응답결과를 재정정보 인지도의 대리변수로 활용

- 재정정보를 인지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습득수단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경우 인터넷(73.7%)과 언론매체(60.4%)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전문가는 정부간행물(58.8%)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55.1%) 등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국민은 예산규모(28.9%), 지출내역(28.2%) 등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전문가는 학술연구(38.6%), 국가정책수립 등 연구용역(22.0%)을 위해 주로 정보를 습득
- 재정정보 공개 포털(열린재정, 지방재정 365,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대한 인지도(중복응답)는 일반국민 43.9%(355명), 전문가 88.5%(138명)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보공개포털별 일반국민 인지도는 열린재정 26.1%, 지방재정365 25.8%, 지방교육재정알리미 15.4%이며, 전문가 집단은 각각 77.6%, 63.5% 및 39.7%
 - 정보공개포털 운영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일반국민은 59.6%, 전문가는 94.2%가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용주기는 두 집단 모두 분기별 1회(일반국민 47.8%, 전문가 40.4%)정도 이용하고 있음
- 재정정보 공개 포털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일반국민 56.1점, 전문가 55.8점으로 두 집단 간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세부 항목별로 일반국민은 홈페이지 접근성이 58.0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으며 정보의 충분성은 가장 낮은 54.1점을 기록
 - 전문가는 정보의 정확성이 68.3점으로 가장 높고 정보의 충분성은 가장 낮은 44.8점을 기록

[재정정보 이용현황 조사 결과]

구분	일반국민	전문가
재정정보 이용 목적 (중복응답)	- 예산 사용 내역 확인(56.4%) - 예산규모 파악(47.8%)	- 학술연구(66.7%) -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49.2%)
재정정보 습득 경로 (중복응답)	- 언론매체: 73.7% - 인터넷(공개포털 제외): 60.4	- 정부간행물: 58.8% - 정보공개포털: 55.1%
재정정보 공개 포털 인지도	공개포털 인지도: 43.9%	공개포털 인지도: 88.5%
재정정보 공개 포털 이용 및 방문 빈도	- 이용률: 59.6% - 분기별 1회: 47.8%	- 이용률: 94.2% - 분기별 1회: 36.9%
재정정보 공개 포털 만족도	- 종합 만족도: 56.1점 (최고) 홈페이지 접근성: 58.0점 (최저) 정보의 충분성: 54.1점	- 전반적 만족도: 55.8점 (최고) 정보의 정확성: 68.3점 (최저) 정보의 충분성: 44.8점
재정정보 수요 (중복응답)	- 집행상황: 50.8% - 재정사업내용: 47.1%	- 예산규모: 47.4% - 재정사업내용: 41.1%

□ 일반국민과 재정전문가의 항목별 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중요도-성과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분석)결과 정보의 적시성과 충분성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분석됨

○ 정보의 접근성과 정확성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지·관리가 중요

[IPA 분석 결과]

구분	만족도		중요도 (상관계수)		분석 결과	
	전문가	국민	전문가	국민	전문가	국민
정보 접근성	60.00	57.99	0.617	0.490	상대적 강점, 유지 관리	유지 관리
정보 정확성	68.27	56.87	0.442	0.691	유지 관리	상대적 강점
정보 적시성	51.15	55.88	0.657	0.667	최우선 개선	최우선 개선
정보 충분성	44.81	54.10	0.751	0.665	최우선 개선	최우선 개선

4. 재정정보 공개 개선 방안

- 현행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 공개대상 재정정보 확대를 위해 재정정보 공개포탈간 연계·통합을 통한 정보제공, 세부사업 및 성과 정보공개 확대 등이 필요
 - 문제점으로는 세부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부족, 사업별 성과정보 부족, 세목별 정보 부족 등이 제시
 - 재정정보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비정형 재정정보의 DB화, 정보제공 포맷의 다양화 및 수요자별 차별화된 정보제공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
 - 문제점으로는 정보공개 포털별 분절적 정보제공, 다운로드 기능 부족, 비정형 데이터의 DB구축 미흡 등이 제시
 - 열린재정의 개선방안으로는 복지, 일자리, 여성 등 주요 재정이슈별 재정정보 제공, 정보공개 포털간 연계강화, 정보분류체계 개선 등을 제안
 - 열린재정의 문제점으로는 종합적 재정정보 기능 부족, 분절적 재정정보 제공 및 재정정보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나타남

[델파이조사에 따른 재정정보 공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
공개대상 재정정보	- 세부사업(내역사업 등) 관련 정보 부족 - 재정사업별 성과정보 제공 부족 - 세목별 정보제공 부족	- 재정정보의 연계 및 통합 제공 - 세부사업 정보공개 강화 - 성과정보 공개 강화
재정정보 공개방법	- 지방재정, 교육재정 등 분절된 정보 제공 - 다운로드 기능 부족 - 비정형 재정정보의 DB 구축 미흡	- 비정형 재정정보의 DB 구축 - 재정정보별 제공 포맷 확대 - 정보이용자별 차별화된 정보 제공
열린재정	- 재정정보의 종합제공 기능 부족 - 재정사업별 제공정보의 분절적 제공 - 제공 정보의 설명 부족	- 재정이슈별 정보제공 강화 - 정보제공 포털 연계 강화 - 포털 내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정보접근성 개선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II. 재정정보 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	7
1. 공개제도 현황	7
2. 재정정보 공개의 문제점	12
III. 재정정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7
1. 설문조사의 개요	17
2. 응답자 특성	19
3. 재정정보 이용 현황 조사 결과	21
4. 학술연구에서의 재정정보 이용 현황	35
5. 재정정보 이용현황에 대한 집단간 비교·분석	37
IV.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 분석	43
1. 델파이조사 개요	43
2. 델파이 조사를 통한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	44
3.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	55
V. 결론	65
참고 문헌	68

부 록	70
1. 설문조사지(일반인 및 전문가)	70
2. 델파이조사 조사지	84

표 목차

〈표 1-1〉 재정정보공개 관련 주요 연구	5
〈표 2-1〉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8
〈표 2-2〉 정보공개 및 이용 추진체계	9
〈표 2-3〉 온라인을 통한 재정정보 공개 내용	11
〈표 2-4〉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 재정정보공개포털 비교	12
〈표 2-5〉 재정정보공개의 주요 문제점	15
〈표 3-1〉 설문조사 방법	17
〈표 3-2〉 설문조사 일반인 조사 결과의 표준화 가중치 산출식	18
〈표 3-3〉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18
〈표 3-4〉 일반국민 응답자 특성	20
〈표 3-5〉 전문가 응답자 현황	21
〈표 3-6〉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개선사항 주요 내용	26
〈표 3-7〉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개선사항 주요 내용	33
〈표 3-8〉 학술연구에서 재정정보공개 포털 자료의 활용 실적	36
〈표 3-9〉 재정정보 이용 현황 분석 결과	38
〈표 3-10〉 전문가 및 국민의 포털이용 만족도 평균비교검정 결과	39
〈표 3-11〉 IPA 분석 결과	40
〈표 4-1〉 공개 대상 재정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
〈표 4-2〉 재정정보 공개 대상 자료 관련 문제점 분석 결과	46
〈표 4-3〉 재정정보 공개 대상 자료 관련 개선방안 분석 결과	47
〈표 4-4〉 재정정보 공개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8
〈표 4-5〉 재정정보 공개방법 관련 문제점 분석 결과	49
〈표 4-6〉 재정정보 공개방법 관련 개선방안 분석 결과	50
〈표 4-7〉 열린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표 4-8〉 열린재정 관련 문제점 분석 결과	52
〈표 4-9〉 열린재정 관련 개선방안 분석 결과	52
〈표 4-10〉 열린재정 관련 개선방안 분석 결과	54
〈표 4-11〉 비정형 자료의 DB화 예시	59
〈표 4-12〉 비정형 자료와 재정정보의 시계열 제공	6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그림 3-1〉 2018년 국가 재정정보 접촉 여부	22
〈그림 3-2〉 일반 국민의 재정정보 습득 경험 및 사유	23
〈그림 3-3〉 재정정보 공개 포털 인지도	24
〈그림 3-4〉 재정정보공개 포털 이용 경험 및 방문 빈도	24
〈그림 3-5〉 재정정보 공개 홈페이지 만족도(n=212)	25
〈그림 3-6〉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개선사항(중복응답)	26
〈그림 3-7〉 재정정보공개 포털 별 만족도(이용 편리성)	27
〈그림 3-8〉 재정정보공개 포털 내 재정정보 수요	27
〈그림 3-9〉 재정정보 공개 장애요인	28
〈그림 3-10〉 전문가의 재정정보 습득 경험 및 사유	29
〈그림 3-11〉 재정정보 공개 포털 인지도	30
〈그림 3-12〉 가장 관심있는 재정정보 공개 포털 및 이용 경험	30
〈그림 3-13〉 재정정보공개 포털 이용 만족도	31
〈그림 3-14〉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개선사항(중복응답)	32
〈그림 3-15〉 재정정보공개 포털 별 이용 편리성	34
〈그림 3-16〉 재정정보공개 포털 내 재정정보 수요	34
〈그림 3-17〉 재정정보 공개 장애요인	35
〈그림 3-18〉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IPA 분석 결과	41
〈그림 4-1〉 델파이 조사 진행 절차	44
〈그림 4-2〉 정보공개 수준 확대 관련 개선과제	58
〈그림 4-3〉 정보공개 방식의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관련 개선과제	60
〈그림 4-4〉 열린재정 관련 개선과제	62
〈그림 4-5〉 재정정보공개 관련 플랫폼 연계	63

I. 서론

1. 연구 목적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정부는 재정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정보공개포털인 ‘열린재정’을 2018년 2월에 개편하였다.

재정정보공개 목적은 재정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재정투명성이란 “일반국민에게 정부의 조직, 기능, 재정정책의 의도, 공적부문의 회계 및 재정 전망 결과를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며 접근가능하게 하는 것”(OECD, 2001; 임성일, 2006, 박관훈, 2006)을 의미한다. 재정투명성이 제고되면 재정정보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완화되고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과 재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재정건전성과 재정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강동관, 2011; 임의상 외, 2016). 이러한 목적으로 재정정보공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개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정보의 양과 품질 등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서재만, 2010; 권오성, 2014; 윤광석 외, 2016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정정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제공의 시의성, 충분성 등에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권오성, 2014:6), 정보공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재정정보 활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이현숙, 2012:38). 또한 재정정보가 국가(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그리고 각 부처에서 공개하는 재정정보 등이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권오성, 2014:148).

따라서 재정투명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정보공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정보 활용의 실태, 장애요인과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재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지방재정정보공시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재정에 대한 연구들은 국가결산보고서, 회계정보 등 세부 분야의 정보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권오성, 2014; 김주희 외, 2016 등). 재정정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는 주로 공무원, 국회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재정정보공개의 주요 정책대상인 국민과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 등의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정보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정보공개의 가장 포괄적 수요자인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정정보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재정정보공개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재정정보공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등 재정정보공개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재정정보의 이용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학술논문 등 문헌조사를 통해 재정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셋째,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재정정보공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재정정보공개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정정보개의 대상인 재정정보와 그 활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법령 상 재정정보의 정의는 기획재정부장관 훈령인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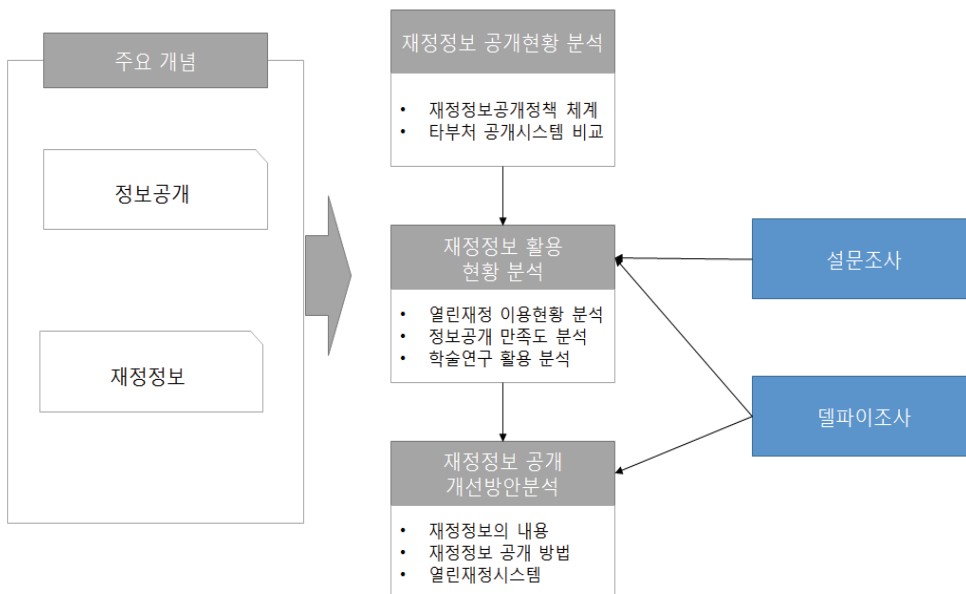
한 규정」에서 “「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제9조에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재정정보를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의미있는 수준으로 구현하는 것”(서재만, 2015:15)으로 정의하거나, 재정활동의 단계별 구분에 따라 “예산평가-예산심의-예산집행-결산-성과평가” 과정에서 도출되는 모든 정보(수치정보 및 비정형 정보(관련 회의록, 첨부서류 등))로 정의하고 있다. 곽관훈(2006)은 재정활동에서 산출되는 정보 외에도 “정부의 조직, 기능, 재정정책의 의도, 공적부분의 회계, 재정의 전망”을 공개 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재정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재정정보로 인식하고 있다. 옥동석 외(2002)는 재정정보를 목적에 따라 ① 재정의 적정한 중장기적 운용을 위한 재정건전성에 관한 정보, ② 회계연도 내의 재정운용의 원활화를 위한 적정수준의 유동성과 지불수단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보, ③ 재정의 경제적 성격에 따른 수입·지출의 분류 정보, ④ 재정자원의 전략적 자원배분과 관련된 정보, ⑤ 개별 사업의 운용 효율성에 관한 정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령상의 정의와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보를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형·비정형 자료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내용은 크게 재정정보 공개 및 이용 현황 분석과 재정정보공개 개선방안 도출로 구분된다. 먼저 재정정보 공개 현황은 재정정보공개의 근거법령, 정보공개 추진체계와 실제 공개수단인 재정정보 공개 포털을 비교 분석한다. 재정정보 이용 현황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정정보 이용 수단, 관심 정보, 재정정보 공개포털 이용 및 효과성, 재정정보 이용 장애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재정분야 주요 학회(한국재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등)에 최근 5년간 게재된 학술논문의 재정정보 활용 실태를 분석한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와 학술논문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재정정보공개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대상은 재정 정보 공개 분야 전문가이며, 조사 내용은 재정정보 활용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방안이다. 마지막으로 델파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재정정보 공개 및 활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국가재정보다는 지방재정의 재정정보공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서정섭, 2002; 곽관훈, 2006; 임성일, 2006; 배인명, 2009; 임현, 2009; 금재덕 외, 2010 등). 이는 지방재정 재정정보공개가 ‘지방재정공시제도’를 근거로 지방재정정보공개포털(지방재정365), 지방행정정보종합정보공개포털(내고장알리미) 등을 운영하면서 재정정

보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반면 국가 재정정보 공개와 관련된 연구는 국회에 대한 재정정보 공개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서재만(2010), 국회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제공되는 재정정보의 충실성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김주희 외(2016), 재정회계정보의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수행한 권오성(2014) 및 재정정보 활용 제고를 목적으로 해외사례조사를 수행한 박정수 외(2010)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표 1-1> 재정정보공개 관련 주요 연구

	주요내용	연구방법
김주희 외 (2016)	국가결산보고서 제공 재정정보의 충실성 분석 및 개선방안	• 국회, 전문가 설문조사
권오성(2014)	재정회계정보의 활성화 방안 마련	• 공무원, 전문가 설문조사 (일반 데이터 활용 대상) • 해외 사례 연구
박정수 외 (2011)	재정정보 통합 및 연계활용방안 (이행전략 중심)	• 해외 사례 연구
서재만(2010)	대국회 재정정보 공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 문헌조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재만 외(2010)는 재정정보의 공표 형식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의성이 부족한 성과정보 제공 및 시계열화된 재정정보 제공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보의 공개 확대, 예·결산 첨부서류 등 내용 확대, 재정정보 공표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권오성(2014)은 재정회계정보의 개방 및 활용에 대한 공무원(48명)과 전문가(152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데이터 품질(정확성, 일관성, 유효성, 명확성)과 데이터 활용(유용성, 적시성, 접근성, 충분성)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제공되

는 재정정보의 품질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과 전문가 간 데이터 공개의 품질과 충분성에 있어 각기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어 정보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집단의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주희 외(2016)는 국가결산보고서의 재정정보 제공 기능 평가를 목적으로 국회의원(83명) 및 전문가(31명)를 대상으로 결산보고서의 활용도, 정보 유용성, 신뢰성, 이해 가능성, 정보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가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 관련 정보가 부족하며 특히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수 외(2011)는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재정정보 활용 및 연계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독일의 재정정보 시각화 노력, 미국의 보조사업 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을 우수사례로 언급하면서 재정정보 활용은 수요자 관점에서 충분성, 유용성, 민주성(책임성 및 투명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재정회계 정보의 공개 포털 일원화, 재정통계 포맷의 표준화와 부문별 재정정보시스템의 정보 취합을 위한 표준화 및 연계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정정보 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선행연구들은 재정정보 전반에 대한 조사보다는 결산보고서, 회계정보 등 미시적 분야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 대상에 있어서도 정보 생산주체인 공무원, 일반국민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이용하는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재정정보 공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접근 경로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이용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설문조사의 대상 또한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보완할 수 있다. 아울러 객관식 형태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의 한계점을 델파이 조사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실현가능성과 시의성이 높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II. 재정정보 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

1. 공개제도 현황

재정정보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과 성과평가 등 재정활동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을 담당하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 주체 등이 생산자가 되고 생산된 정보는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등을 근거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 중앙관서와 각 기금주체의 재정정보의 공표는 「국가재정법」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관련 주요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나 구체적인 정보공개에 대한 규율은 「지방재정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 및 공개 방식과 비공개대상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정과 관련된 공개대상 정보는 예산집행의 내용 및 사업평가 결과,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 등이며, 공개방식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전 공개된다.

정부기관 등이 생성하는 정보의 공개와 함께 활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관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정보 또한 정보제공 운영실태 평가, 이용활성화, 제공기반 조성 등에 있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1) 비공개대상 정보는 법률 등에서 정한 비밀 및 비공개사유,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관계 관련 국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정보, 국민의 안전·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감사 등과 관련된 정보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개인정보 등이다.

〈표 2-1〉 재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법령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 재정정보의 공개 대상(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등)〈제9조 제1항〉 - 재정정보 공개 방법(정보통신매체, 인쇄물 등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제9조 제1항〉 - 재정정보 공개 주기(매년 1회 이상)〈제9조 제1항〉 - 재정정보 공개 관련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제9조 제2항〉 -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각 사업별 설명자료의 인터넷 공개 의무〈제9조 제3항, 제4항〉 -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 정보공개 지침 통보〈제9조 제3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 법에 따른 추가 공개대상(국채 현황 및 변동내역, 국가재정운용계획, 조세 지출예산서, 재정사업 평가결과, 국가채무관리계획, 지방·교육재정 관련 협의사항 등)〈제5조 제1항〉 -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인터넷 공개사항(세입징수상황, 세출예산집행상황, 기금운용상황 등)〈제5조 제1항〉 -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인터넷 공개주기(매일 공개, 매일 생성 불가 자료는 해당 자료 생성주기에 맞춰 공개)〈제5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 대상(예산집행의 내용 및 사업평가 결과,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제7조〉 - 정보공개 방식(전자형태 정보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사전 공개〈8조의2〉) - 정보공개 비공개 기준(법률 등에서 정한 비밀 및 비공개사유,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관계 관련 국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정보, 국민의 안전·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감사 등과 관련된 정보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개인정보 등〈제9조〉)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및 공개여부 결정 등〈제10조, 제11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 관리 조직(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구성·운영〈제5조, 제6조〉 -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제15조의2〉 -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제22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제23조〉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의 운용상황(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채권, 기금운용, 공유재산,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 경영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예산 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투자심사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 지방보조금 운영 현황 등)〈제60조〉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공개〈제55조〉 -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재정건전화계획 공개〈제56조〉 -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의 일별 공개〈제60조의1〉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정보의 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행정조직을 통해 관리된다. 따라서 정보공개와 정보활용을 규정한 법령이 나뉘어져 있어 정보공개와 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도 양분되어 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정보공개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총괄²⁾하고 있다(법 제22조).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총괄한다(법 제5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와 관련된 계획수립 및 정책의 개선, 공공데이터의 지정 등 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정책의 평가, 공공데이터 이용현황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고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제23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의 표준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시정 요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주무부처의 기능을 맡고 있다.

<표 2-2> 정보공개 및 이용 추진체계

구 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용
총괄 기구	정보공개위원회(행정안전부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법적 근거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법
주요 기능	• 정보공개 정책 수립 • 정보공개 제도 개선 •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태조사 • 공공데이터 지정 관리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2)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및 기준 수립, 정보공개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태 평가를 담당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를 관장하는 총괄부처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정보 공개는 개별적 공개방식과 포털 공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적 공개는 기관별로 국가재정법 및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공개의무가 발생하는 재정정보³⁾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방식이다. 포털방식은 개별기관에서 생산된 재정정보와 함께 기획재정부(dBrain), 행정안전부(e호조), 교육부(에듀파인) 등 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기관에서 생산된 재정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형식으로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 포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데이터 포털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개별적 공개 방식은 포털 방식에 비해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 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이용자가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 편의성과 정보의 충분성이 부족하며, 정보공개 형식 등이 표준화⁴⁾되어 있지 않아 정보의 통일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포털 방식은 개별 기관에서 생산된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연구보고서, 평가결과 등 문서자료와 교육자료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 접근성 그리고 정보의 충분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개별 정보생산기관에서 생성된 정보를 포털에서 제공하기까지 발생하는 시차(time lag)로 시의성 부족, 정보생성기관과 정보제공기관이 상이하여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오류 수정에도 일정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정확성 결여 등의 단점을 가진다.⁵⁾

3)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예산·결산자료와 같은 의무적 공개자료 이외에도 사용자 편의성 제고차원에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국회의 예산심사와 관련된 심사보고서, 회의록 등을 제공하고 있다.

4) 기관별 공시 사항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 양식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기관별로 상이하게 관리되는 실정이다.

5)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대비 자체세입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지방재정정보공개포털인 '지방재정365'와 국가재정공개포털인 열린재정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지방재정365와 열린재정의 시계열자료 제공 기간이 상이하다.

<표 2-3> 온라인을 통한 재정정보 공개 내용

구분	주요 공개 정보
기관 홈페이지	• (부처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실적, 계약내용(입찰공고 등), 예산편성내역, 예산 및 기금 운용현황, 예산안, 국고보조사업 현황,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세입세출결산 등 • (공공기관 홈페이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및 조치결과, 기금운용계획, 기금지원 사업 사업선정 결과, 국비보조 및 정부보조사업 현황, 계약내용, 100억원 이상 공사정보, 예산, 업무추진비 내역 등 • (국회) 예산·결산심사 관련 발간물(보고서 등), 심사 회의록 등 제공
정보공개 포털	• (국가재정공개포털) 중앙정부 관련 dBrain생성정보 및 각 기관별 생성 정보(정부발간물 포함) 종합 제공 • (지방재정공개포털) 지방재정 관련 e호조 생성정보 및 각 기관별 생성 정보(정부발간물 포함) 종합 제공 • (지방교육재정공개포털) 지방교육재정 관련 에듀파인 생성 정보 및 각 기관별 생성 정보(정부발간물 포함) 종합 제공 • (국가통계포털) 각 부처 생산정보 중 주요정보 제공(국채, 국가채무, 국유재산, 지방세통계, 통합재정수지 등) • (공공데이터포털) 국민, 기업 등 수요 중심으로 개방효과성 및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국가중점데이터(예산·결산현황, 부담금 운용현황 등 연도별 재정지표) 등 재정정보 제공

대표적 재정정보 공개 포털은 열린재정(기획재정부)과 지방재정365(행정안전부)이다. 두 포털은 모두 기본적으로 재정순기(예산편성-집행-결산-성과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재정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재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재정은 세입·세출 등 예·결산 자료와 함께 지방재정 정보, 국제 재정지표, 국회 예·결산 심사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충분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재정 정보를 제공하는 지방재정365는 재정운용 상태 및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행사축제경비비율,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확보비율 등)를 제공하여 재정운용 상태 및 성과파악에 있어 유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2-4>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 재정정보공개포털 비교

구분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제공정보량 ¹⁾	174종	119종
예산	44종 (세출 예산편성 현황 등)	43종 (지역 통합재정규모 등)
세입	10종 (상속세 신고 현황, 법인세 신고 현황 등)	9종 (시도별 지방세 징수율, 세목별 세수신장률 등)
집행	10종 (월별 지출집행상황, 재정집행점검대상사업 집행현황 등)	1종 (조기집행실적)
결산	60종 (세출결산 현황,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24종 (복식부기재무현황, 세출결산 등)
채무	10종 (월별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보증채무현황 등)	11종 (지방채 잔액, 지역통합자산현황, 지자체 부채비율 등)
국유재산 (공유재산)	9종 (국유재산 현황, 소관별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등)	4종 (공유재산현재액, 공공시설운영현황 등)
성과평가	11종 (기금 자산운용 평가, 성과평가보고서, 재정수지 등)	26종 (행사축제경비비율,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 재정분석 결과,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기타	20종 (국제비교, 지방재정, 공공기관 정보 등)	1종 (지방공기업 정보)
정부간행물 등 (문서자료)	45종	13종

주) 열린재정은 '상세재정통계DB' 제공기준, 지방재정365는 '재정데이터 개방 데이터셋' 기준

2. 재정정보 공개의 문제점

재정정보 공개 확대가 재정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요자의 활발한 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정보의 공급자인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 또는 전문가 등이 이해하기 쉬운 뿐더러 재정정보를 손쉽게 취

득·가공·활용의 전 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즉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박기영, 2012; 김주희 외, 2016).

「국가재정법」에서도 재정정보 공개에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해야 함(제9조)”을 강조하고 있으며 Kopits & Craing(1998), Vishwanath & Kaufmann(1999) 등도 재정정보제공의 시의성, 접근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포괄성 등을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정보의 필요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김봉환 외, 2014:62).

재정정보 공개범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공개 포털 구축 및 개편 등을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수요자 중심의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현재 재정정보 공개 정책, 범위, 수단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정보이용의 접근성 측면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개념과 내용 등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 어려우며, 다수 정보가 문서 형태로 공개되고 있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또한 공개되는 정보 간 연계가 부족하고, 재정정보 공개 대상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형식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처 간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재정정보공개 포털별로 상이한 재정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정보는 통계청, 공공데이터포털, 열린재정, 지방재정365에서 중복되어 제공되고 있다. 또한 포털별로 중복 제공하는 정보도 제공기간이 상이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재정용어의 이해도 측면에서도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상당수 재정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려워 부수적인 설명이 없을 경우 해당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공개 정보의 충분성 측면에서 국회의 심의로 확정된 예·결산서 등은 충

실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단계까지 생산되는 예산요구액, 예산요구액 조정 내역 등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조정 세부내역 등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정사업별 수행 주체,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사업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 내용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 이외의 평가 결과는 공개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이 선행연구에서 제기하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이다.

셋째, 정확성 측면에서 정보공개 대상과 비공개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공개 형식에 있어서도 각 정보공개 주체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공개 형식에 있어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적시성 측면에서 정보 생성시점과 공개시점 간 발생하는 시차(time lag)가 재정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재정집행 및 성과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재정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여 각 사업별 재정집행 상황 등에 대한 일별 또는 월별단위의 고빈도 자료(high frequency data)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재정사업별 사업설명자료도 '18년부터 공개하여 재정정보 제공의 충분성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표 2-5> 재정정보공개의 주요 문제점

구분	주요 문제점
접근성	•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개념·내용 등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 어려움 • 다수 정보가 문서형태로 공개 • 공개되는 정보 간 연계 부족 • 재정정보 공개 형식에 관한 구체적 규정 미비
충분성	• 정보공개 대상과 비공개대상 구분 기준 미흡 • 예·결산 심사과정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재정사업별 정보(사업기간, 규모 등) 제공 부족 • 사업평가결과 등의 정보공개 부실
정확성	• 재정통계의 일관성 부족 • 재정정보 공개 형식에 관한 구체적 규정 미비
적시성	• 공개되는 정보의 시의성 부족 • 성과관련 정보공개의 업데이트 지연

Ⅲ. 재정정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의 개요

재정정보 주요 수요자인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이용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일반국민 810명과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국민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은 81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4\%$ p로 표본배분은 30명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방식을 사용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한국재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재정 관련 학회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응답한 15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3-1> 설문조사 방법

구 분	일반국민	전문가
모집단	전국 거주 19세 이상 일반국민	재정정보 관련 전문가 (유관학회 등록 회원)
표본크기	810명(유효표본 기준)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4\%$ p 표본배분 : 30명 우선선발 후 비례배분	156명(유효표본 기준)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구조화된 설문지	
자료수집도구	2018.8.29. ~ 9.20.	

〈표 3-2〉 설문조사 일반인 조사 결과의 표준화 가중치 산출식

- i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i = 1(\text{서울}), 2(\text{부산}), \dots, 16(\text{제주})$)
-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j = 1(\text{남성}), 2(\text{여성})$)
- k :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 ($j = 1(19\sim 29\text{세}), 2(20\text{대}), \dots, 5(60\text{세 이상})$)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수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표본(조사된) 응답자수
- N : 모집단 전체 인구수
-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수
- W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의 가중치
- 층별 최종 표준화 가중치 W_{ijk}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함

$$W_{ijk} = \frac{N_{ijk}}{n_{ijk}} \times \frac{n}{N}$$

설문조사의 내용은 주로 재정정보 이용현황, 재정정보 포털 이용현황, 그리고 재정정보 공개 개선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설문문항은 선행연구(권오성, 2014; 김주희 외, 2016 등)에서 사용한 문항 및 내용을 토대로 구조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문항 중 재정정보 포털 이용의 만족도는 리커트(Likert) 척도(5점)로 구성하였다.

〈표 3-3〉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조사내용	세부 내용
재정정보 이용 현황	재정정보 인지 여부, 재정정보 습득 경로 및 빈도, 재정정보 이용 목적, 국가 재정정보 신뢰도 등
재정정보 포털 이용현황	재정정보공개포털 이용 경험 및 빈도, 포털 이용 목적 및 만족도(정보 접근성, 정확성, 적시성, 충분성), 재정정보공개포털(열린재정, 지방재정365 등) 중 편리성 높은 포털 등
재정정보 공개 개선사항	포털 이용 불편·개선사항, 재정정보 공개 장애요인, 추가 공개가 필요한 재정정보 등

2. 응답자 특성

일반국민 표본의 성별비중은 남성 49.9%, 여성 50.1%이다. 연령별로는 19~29세 17.4%, 30~39세 16.9%, 40~49세 19.8%, 50~59세 20.1%이며 60세 이상 25.8%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점유비중이 높은 것은 연령별 인구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18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 43백만명 중 60대 인구가 11백만명으로 25.5%를 차지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해당 연령층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환경 접근성에서도 60대 이상 연령층의 인터넷이용률(인터넷 뱅킹 기준)이 19.9%(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으로 나타나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13.5%, 서울 11.5%, 인천 6.7% 등 수도권이 3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주가 3.6%로 가장 낮다. 최종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이 61.6%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학원 졸업이상도 9.6%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전문직/관리직이 4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정주부가 1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 표본의 성별분포는 남성 75.0%, 여성 25.0%이다. 연령별로는 40~49세가 39.7%로 가장 높고 50~59세 25.0%, 30~39세 22.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사분야는 학교나 연구원이 67.3%이며, 다음으로 정부부문이 23.1%이다.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원이상 졸업이 96.2%를 점유하고 있으며, 대학교 졸업은 3.8%이다. 대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석사학위과정 중 학회에 가입하였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학회에 가입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표 3-4> 일반국민 응답자 특성

구 분		표본		가중 표본	
		표본수	비중(%)	표본수	비중
전체		(810)	100.0	(810)	100.0
성별	남자	(404)	49.9	(401)	49.6
	여자	(406)	50.1	(409)	50.4
연령	만 19-29세	(141)	17.4	(141)	17.4
	만 30-39세	(137)	16.9	(138)	17.0
	만 40-49세	(160)	19.8	(162)	20.0
	만 50-59세	(163)	20.1	(162)	20.0
	만 60세 이상	(209)	25.8	(207)	25.5
거주 지역1	서울	(93)	11.5	(158)	19.5
	부산	(54)	6.7	(55)	6.8
	대구	(44)	5.4	(39)	4.8
	인천	(54)	6.7	(46)	5.7
	광주	(41)	5.1	(22)	2.7
	대전	(41)	5.1	(23)	2.8
	울산	(39)	4.8	(18)	2.2
	경기	(109)	13.5	(199)	24.6
	강원	(43)	5.3	(24)	3.0
	충북	(38)	4.7	(25)	3.1
	충남(세종포함)	(42)	5.2	(37)	4.6
	전북	(43)	5.3	(29)	3.6
	전남	(42)	5.2	(30)	3.7
	경북	(47)	5.8	(43)	5.2
	경남	(51)	6.3	(52)	6.5
	제주	(29)	3.6	(10)	1.2
거주 지역2	수도권	(256)	31.6	(403)	49.7
	부산/울산/경남	(144)	17.8	(125)	15.5
	대구/경북	(91)	11.2	(81)	10.0
	광주/전라	(126)	15.6	(81)	10.0
	대전/충청	(121)	14.9	(85)	10.5
	강원	(43)	5.3	(24)	3.0
	제주	(29)	3.6	(10)	1.2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2)	2.7	(19)	2.3
	고등학교 졸업	(211)	26.0	(202)	24.9
	대학교 졸업	(499)	61.6	(510)	63.0
	대학원 졸업 이상	(78)	9.6	(79)	9.8
직업	농업/임업/어업	(9)	1.1	(7)	0.9
	자영업	(75)	9.3	(75)	9.2
	판매/서비스직	(49)	6.0	(46)	5.6
	기능직/노무직/기술직	(55)	6.8	(55)	6.8
	사무직/전문직/관리직	(359)	44.3	(372)	45.9
	가정주부	(134)	16.5	(133)	16.4
	학생	(55)	6.8	(53)	6.5
	무직	(56)	6.9	(50)	6.2
	기타	(18)	2.2	(21)	2.6

<표 3-5> 전문가 응답자 현황

구분		표본수	%
전체		(156)	100.0
성별	남자	(117)	75.0
	여자	(39)	25.0
연령	만 19-29세	(6)	3.8
	만 30-39세	(35)	22.4
	만 40-49세	(62)	39.7
	만 50-59세	(39)	25.0
	만 60세 이상	(14)	9.0
종사분야	정부	(36)	23.1
	기업	(8)	5.1
	학/연	(105)	67.3
	기타	(7)	4.5
최종학력	대학교 졸업	(6)	3.8
	대학원 졸업 이상	(150)	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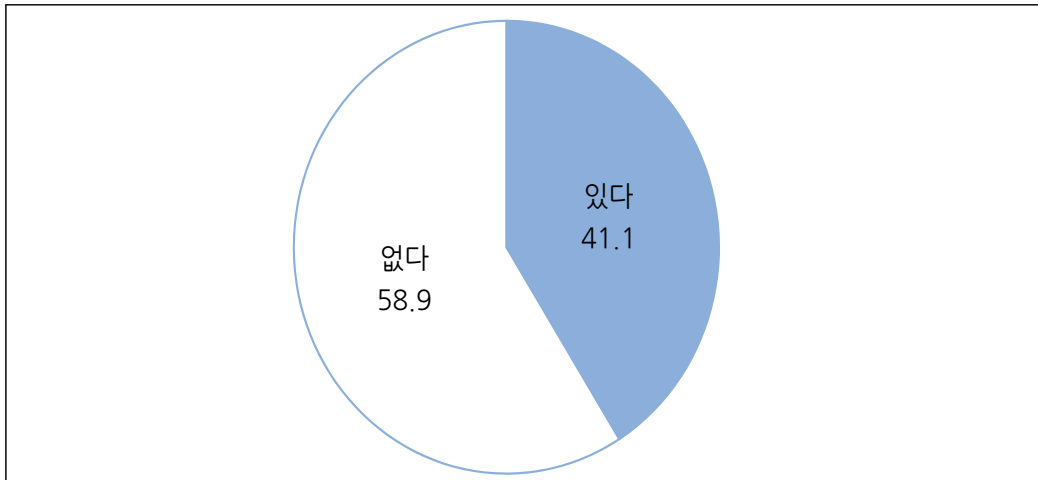
3. 재정정보 이용 현황 조사 결과

1) 일반 국민

재정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언론보도 등의 인용도가 높아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2018년 예산규모를 접한 경험의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 중 41.1인 333명이 2018년 예산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재정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의 58.9%는 2018년 예산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김지윤(2014)에서도 정부의 항목별 지출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1%였던 것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2018년 국가 재정정보 접촉 여부

(n=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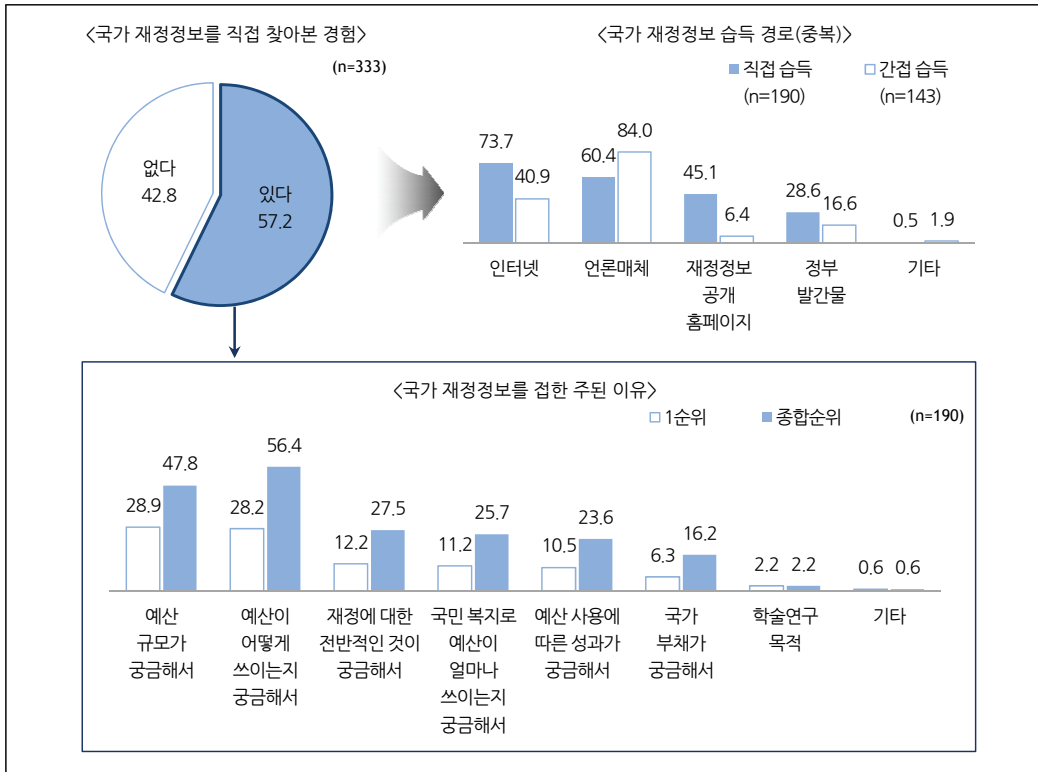


재정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333명을 대상으로 재정정보를 습득한 경로 및 사유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 찾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7.2%(190명)로 나타났으며, 주로 인터넷(78.7%) 및 언론매체(60.4%)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는 직접 데이터를 검색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인터넷 73.7%, 언론매체 60.4%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정보 공개 홈페이지를 이용했다는 응답은 45.1%로 조사되었다. 한편 재정정보를 직접 찾아본 이유는 종합순위 기준으로 예산의 배분 및 집행(56.4%)과 예산 규모 확인(47.8%)을 목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일반 국민의 재정정보 습득 경험 및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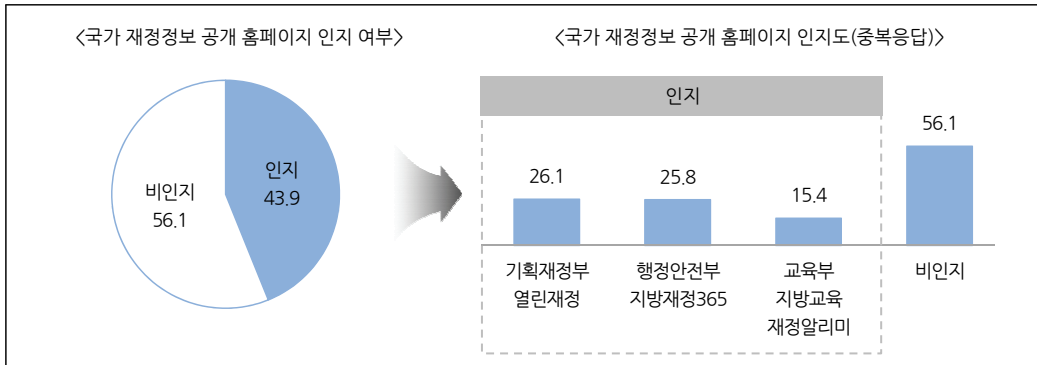
(단위 : %)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정정보공개 포털에 대한 인지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810명의 43.9%(355명)이 재정정보공개포털이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은 56.1%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재정정보공개 포털인 ‘열린재정(중앙정부재정)’, ‘지방재정365(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알리미(지방교육재정)’ 등 세 포털의 인지도는 열린재정 26.1%(210명)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재정정보 공개 포털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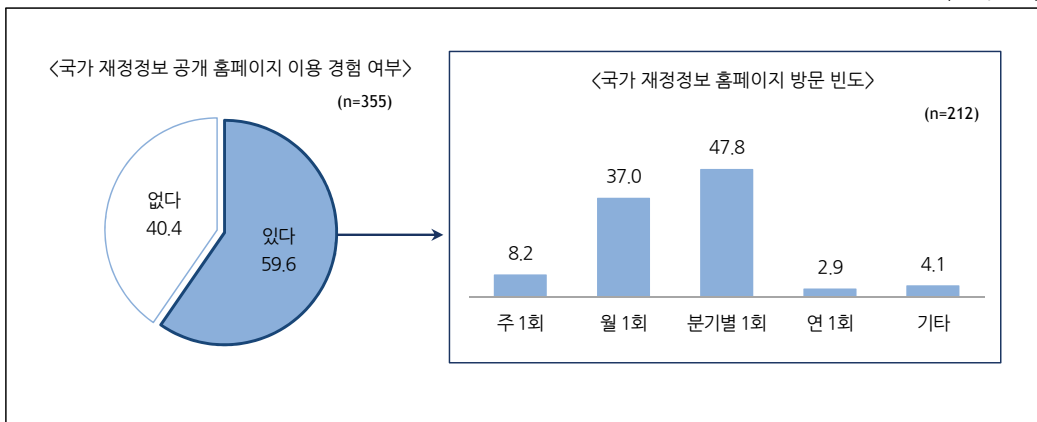
(단위 : %, n=810)



정부가 재정정보공개 포털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355명) 중 실제 재정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12명(59.6%)로 나타났다. 포털 이용 유경험자의 이용빈도는 주로 분기별 1회(47.8%) 또는 월 1회(37.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주 1회도 8.2%로 나타났다.

〈그림 3-4〉 재정정보공개 포털 이용 경험 및 방문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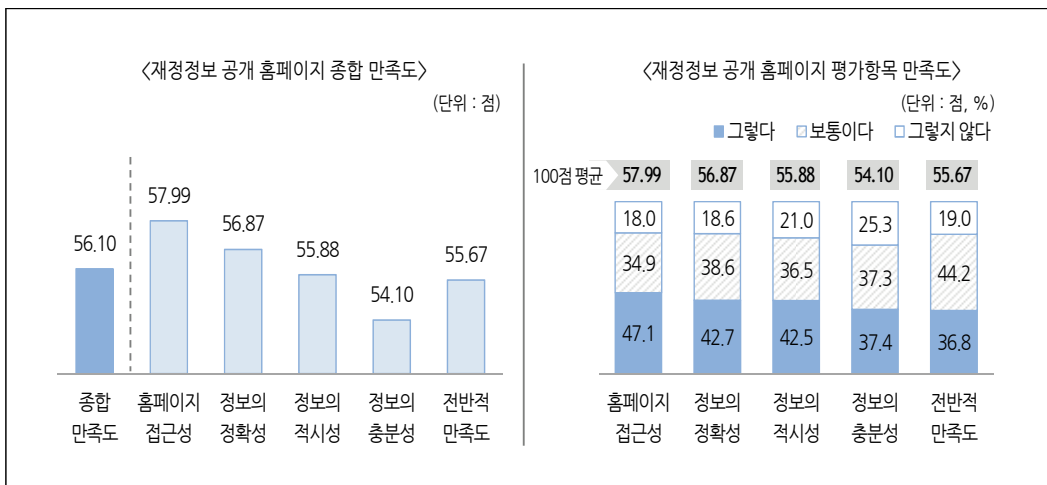
(단위 : %)



재정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212명을 대상으로 재정정보공개 포털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을 기준으로 55.7점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항목별로 홈페이지 접근성이 58.0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정보의 정확성 56.9점, 정보의 적시성 55.9점 및 정보의 충분성 54.1점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항목들을 평균한 종합 만족도는 56.1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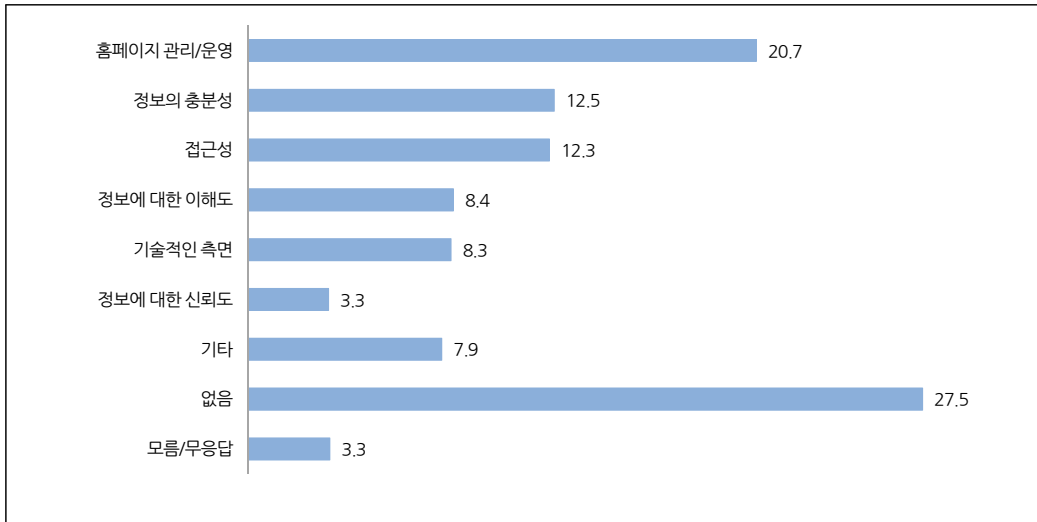
<그림 3-5> 재정정보 공개 홈페이지 만족도(n=212)



응답자가 재정정보공개 포털 이용과정에서 느낀 개선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홈페이지의 관리·운영과 정보의 충분성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개선사항이 많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포털 운영에 대한 홍보 강화, 언론 등을 통한 정보 전달 강화, 소식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 전달 매체 다양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포털 정보 분류체계 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개선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홈페이지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구성과 시각화 자료의 활용,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정보의 충분성에 있어서는 구체적 정보 공개 강화, 재정 집행 현황, 재정 투입 효과 등에 대한 정보 강화, 빅데이터 활용 등이 제시되었고 마지막으로 정보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홍보 활성화, 소식지발간,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원하는 내용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검색 및 분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6>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개선사항(중복응답)

(단위 : %, n=212)



<표 3-6>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개선사항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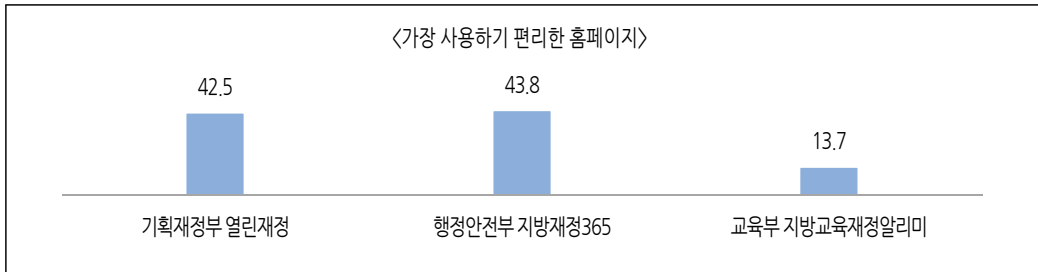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홈페이지 관리/운영	• 일반 국민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직관성 확보 • 도표와 숫자를 겹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필요 •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 매월 공개 필요
정보의 충분성	• 세부적인 자료 공개 필요 • 각 재정사업별로 잘 분류된 예산 변화 제시 • 재정사업의 현재 진행상황 제시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품질 제고
정보의 접근성	• 홈페이지 홍보 활성화 • 소식지 발간, 어플리케이션 개발, 뉴스에 노출 강화 • 원하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검색 및 분류 강화
정보에 대한 이해도	•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쉬운 설명과 쉬운 용어 사용
기술적 측면	• 포털 이용 속도 개선 필요 • 보안프로그램 설치 최소화 필요
정보에 대한 신뢰도	• 투명한 정보제공 필요

한편 주요 재정정보공개포털을 모든 응답자에게 접해보도록 한 후 가장 편리한 포털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지방재정365’와 ‘열린재정’이 각각 43.8%(354명)

와 42.5%(344명)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13.7%로 타 포털에 비해 편의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7> 재정정보공개 포털 별 만족도(이용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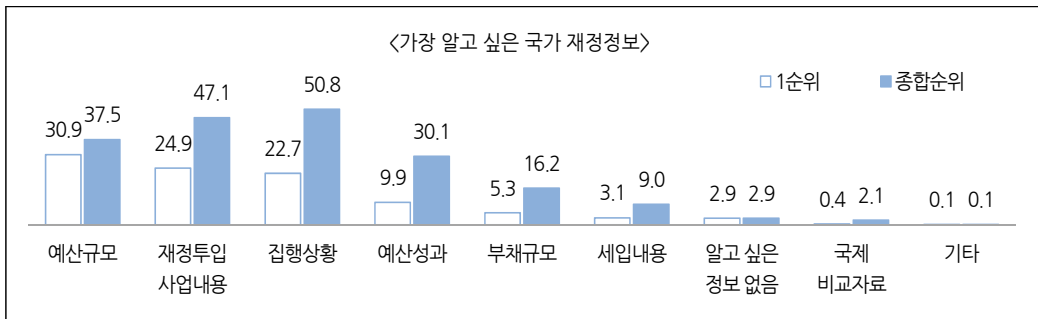
(단위 : %, n=810)



재정정보공개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정보에 대한 이용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알고 싶은 재정정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순위(중복응답)를 기준으로 재정집행 상황(50.8%)과 재정투입 사업내용(47.1%)에 국민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재정정보공개 포털 내 재정정보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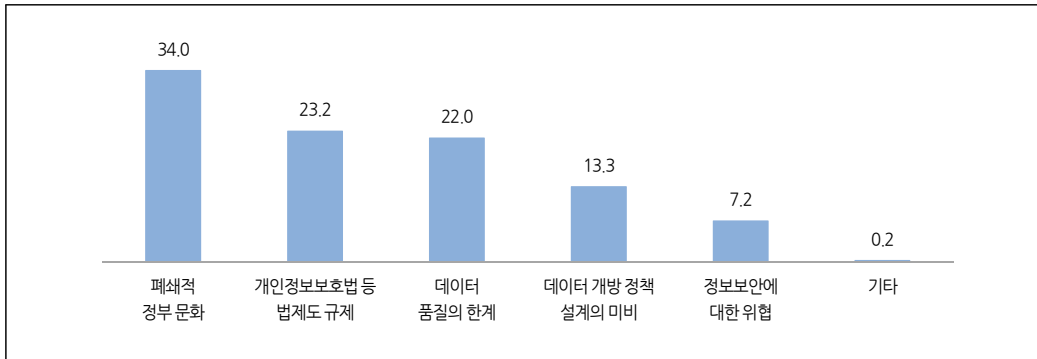
(단위 %, n=810)



재정정보공개 정책의 장애요인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은 폐쇄적 정부문화(34.0%),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 규제(23.2%), 데이터 품질의 한계(22.0%) 등을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재정정보 공개 장애요인

(단위 : %, n=212)



2)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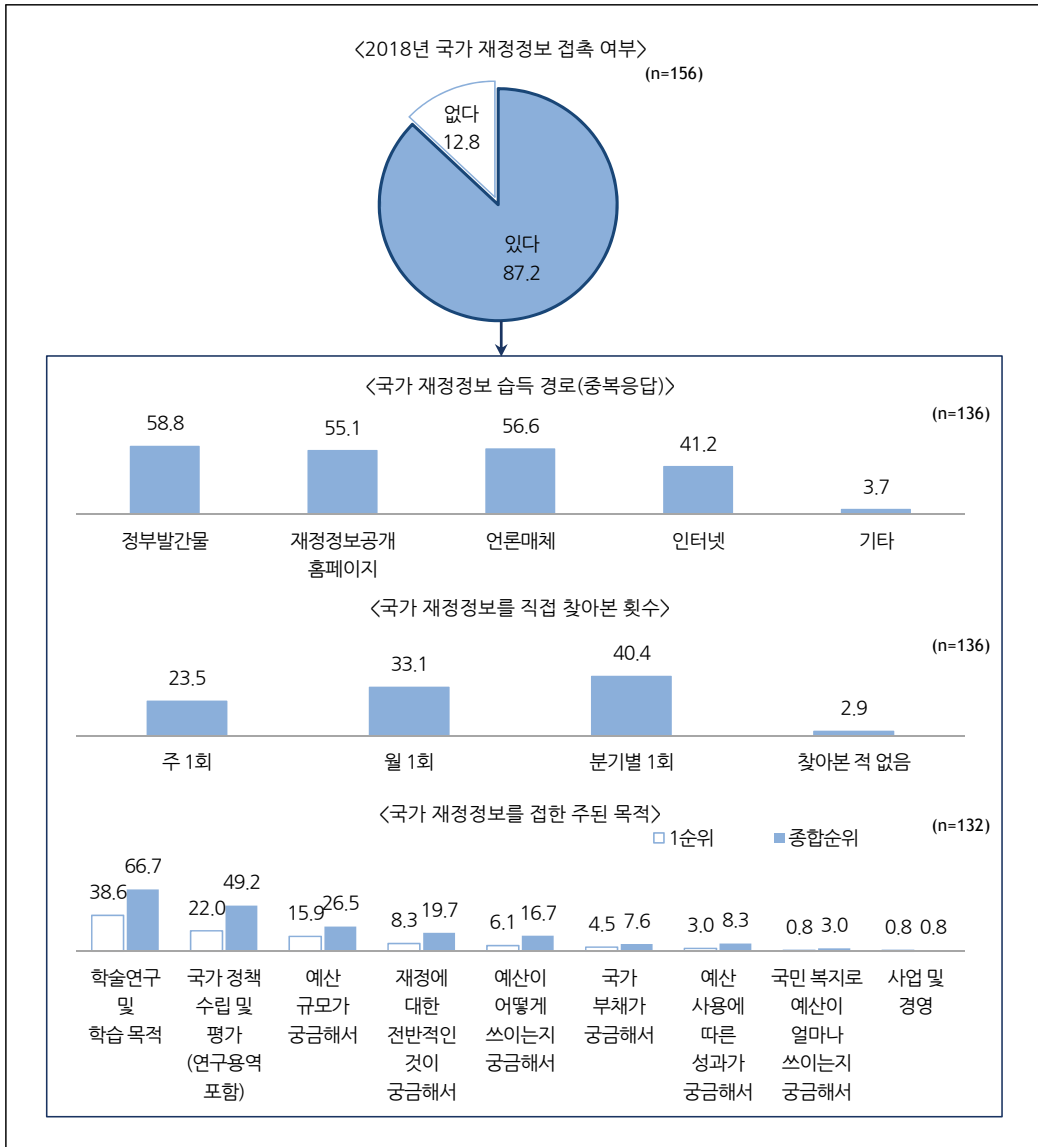
재정정보를 주요 이용하는 대학교수, 정부 연구기관 연구직 종사자 등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 중 ‘2018년 예산’ 정보를 접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7.2%(136명)로 대다수가 재정정보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재정정보 습득 경로는 정부발간물(58.8%), 재정정보공개 포털(55.1%), 언론매체(55.6%)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특정 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반 국민에서는 인터넷(73.7%)과 언론매체(60.4%)가 습득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재정정보의 이용 횟수는 일반 국민의 조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분기별 1회(40.4%)와 월 1회(33.1%)가 가장 많으며 사용목적은 종합순위 기준으로 학술연구(66.7%)와 연구용역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49.2%)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0> 전문가의 재정정보 습득 경험 및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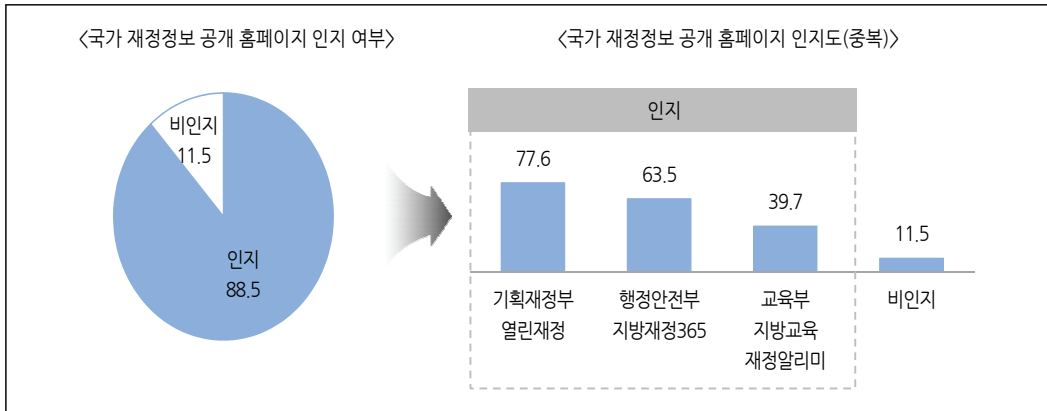
(단위 ; %)



전문가 집단의 88.5%(138명)은 재정정보공개 포털을 인지하고 있으며, 포털 별 인지도는 열린재정이 7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재정365(68.5%), 지방교육재정알리미(39.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 11.5%는 재정정보공개 포털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재정정보 공개 포털 인지도

(단위 : %, n=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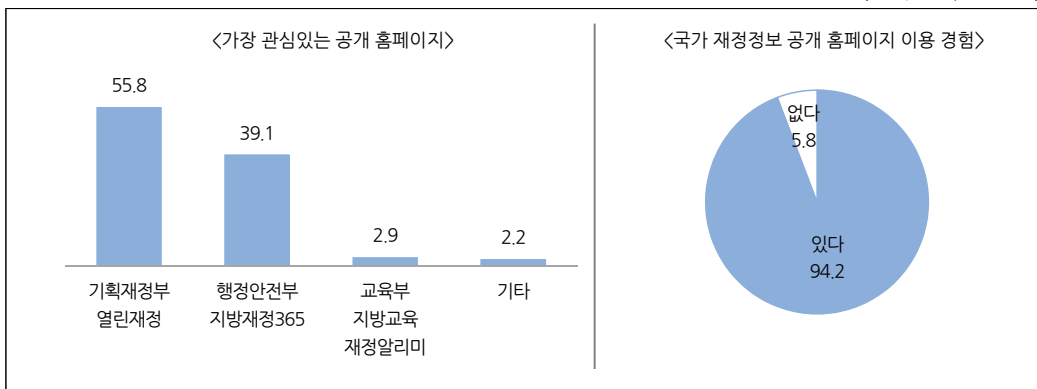


재정정보공개 포털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 138명을 대상으로 포털 이용 경험과 가장 관심있는 재정정보공개 포털을 조사한 결과 포털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 중 94.2%(130명)가 실제 재정정보 공개 포털을 이용하여 자료의 조회, 검색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중 가장 관심이 있는 재정정보 공개 포털은 열린재정 55.8%, 지방재정365 39.1% 및 지방교육재정알리미 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가장 관심있는 재정정보 공개 포털 및 이용 경험

(단위 : %, n=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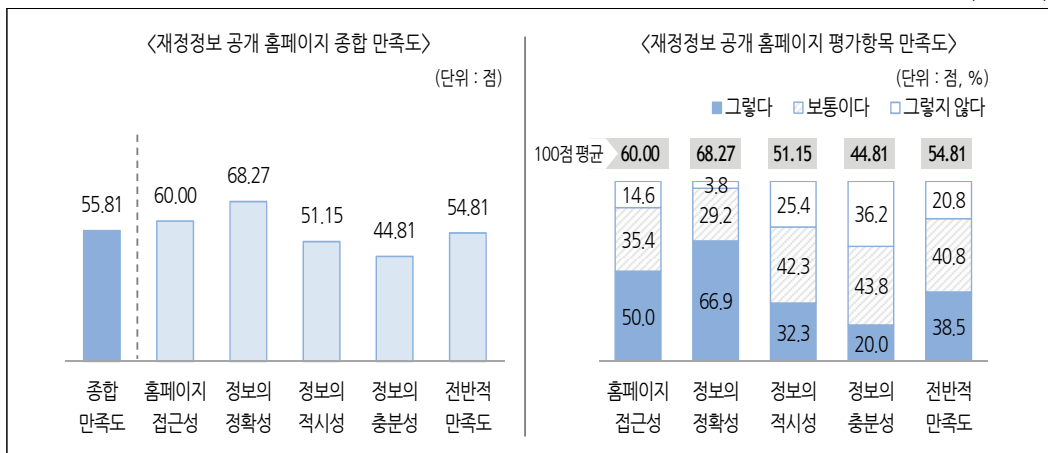


재정정보 공개 포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4.8점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만족도는 정보정확성 68.3점, 홈페이지 접근성 60.0점, 정보의 적시성 51.2점 및 정보의 충분성 44.8점으로 조사되었고 세부항목을 평균한 종합만족도는 55.8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결과를 일반 국민의 결과와 비교하면 일반국민의 전반적 포털 이용 만족도가 54.8점인데 비해 전문가가 다소 전반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홈페이지의 접근성, 정보의 정확성은 일반국민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정보의 충분성과 적시성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정보의 접근, 취득, 활용 등에 있어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이 상이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3-13> 재정정보공개 포털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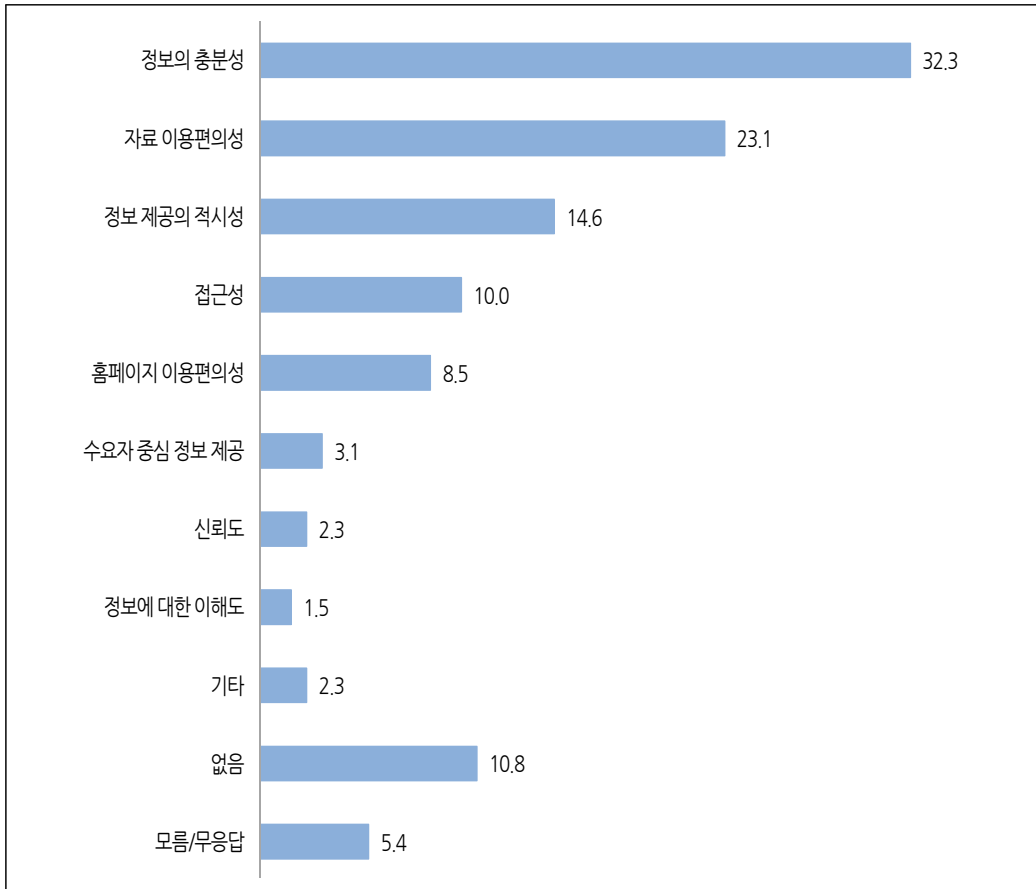
(n=138)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재정정보공개 포털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주로 정보의 충분성(32.3%)과 자료이용의 편의성(23.1%) 및 정보제공의 적시성(14.6%)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개선사항(중복응답)

(단위 : %, n=130)



구체적으로 정보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등 보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재정정보의 시계열 자료 제공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예산현액’이나 재정상태표상 “당기2금액”, “전기1금액” 등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 자료생성주기나 산출근거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자료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제공 자료의 다운로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함과 아울러 자료의 시계열 구성,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종류, 주기, 제공기간 등을 정리한 현황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재구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메뉴 신설 등을 필요로 하였다.

자료의 적시성과 관련하여 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와 실시간 공개 자료의 확충 등을 요구하였다. 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와 관련하여 실제 일부 재정정보공개 포털에서는 2016년까지의 자료만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자료 업데이트 주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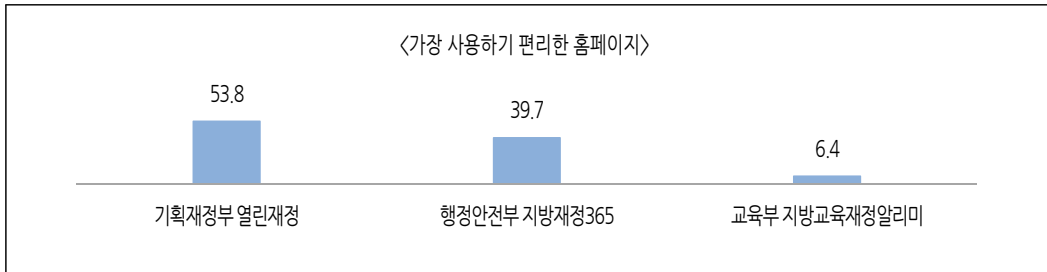
<표 3-7> 홈페이지 이용 시 불편/개선사항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보의 충분성	-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필요 - 재정용어 등에 구체적 설명 필요 - 다양한 재정정보의 공개 필요 - 정보제공의 주기(시계열 자료) 확대
자료이용 편의성	- 제공 자료의 다운로드 편의성 증대 필요 - 시계열 자료로의 자료 제공 필요 - 포털 제공자료의 현황 자료(제공자료 종류, 주기, 제공기간 등 설명) 제공 - 필요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작업 메뉴 필요
정보제공의 적시성	- 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 필요 - 실시간 공개 자료 부족
정보의 접근성	- 포털 내 정보검색 불편 개선 필요 - 재정정보 분류 체계 개선 필요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의 호환성 제고 필요 - 복잡한 메뉴구성 재정비 필요 - 홈페이지 이용 속도가 느려 개선 필요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발굴 및 자료 제공 방안 마련
정보에 대한 이해도	자료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식화 활용 강화

전문가들이 재정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한 후 이용 편리성을 평가해보도록 한 결과에서는 열린재정이 53.8%(84명)로 가장 편리한 포털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방재정365(39.7%), 지방교육재정알리미(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재정정보공개 포털 별 이용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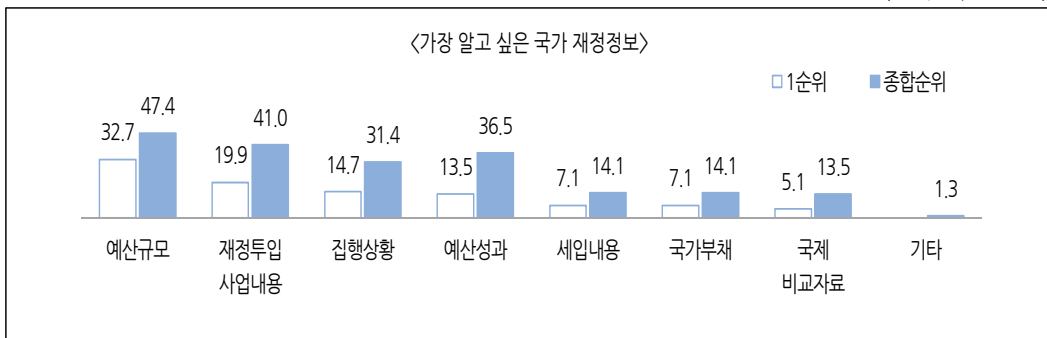
(단위 %, n=156)



재정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전문가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종합순위를 기준으로 예산 규모(47.4%), 재정투입 사업 내용(41.0%), 예산성과(36.5%)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상태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에 대한 수요도 13.5%로 조사되었다.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14.1%로 나타났다.

<그림 3-16> 재정정보공개 포털 내 재정정보 수요

(단위 %, n=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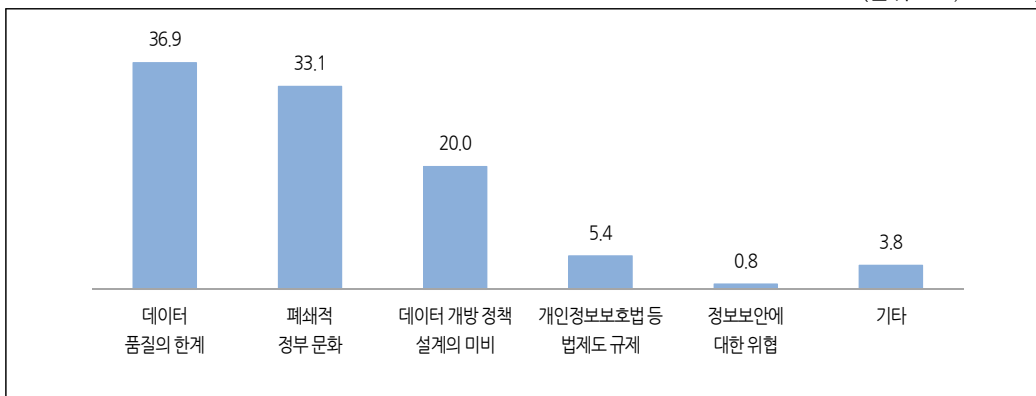


재정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데이터 품질의 한계(36.9%)와 폐쇄적 정부문화(33.1%), 그리고 데이터 개방정책 설계 미비(20.0%) 등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재정정보 공개 포털에 있어 시계열 자료의

부족과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부족 등 정보의 충분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데이터 개방 정책 설계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 공개와 비공개 기준의 구체적 기준 마련과 재정정보 공개 형식의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 규제(23.2%)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만이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재정정보 공개 장애요인

(단위 : %, n=130)



4. 학술연구에서의 재정정보 이용 현황

전문가들은 재정분야 연구에 정부 등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재정정보를 활용한다. 따라서 학술연구에서의 재정정보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설문조사에서 누락되었거나 구체성이 부족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뿐더러 실제 연구목적에 자주 활용되는 재정정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학술연구에 인용된 재정정보 활용 현황⁶⁾은 재정분야의 전문가들이 논문을 게

6) 분석을 위해 이정희(2016)의 분류기준에 따라 학술논문의 주제를 분류하였으며, 국가재정 중 조세와 관련된 학술연구, 지방재정 관련 연구 중 지방세와 관련된 연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재하는 주요 학술논문지 4종(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등⁷⁾)를 대상으로 최근 3년(2016~2018년 10월)간 게재된 69건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논문 중 재정정보 공개 포털에서 제공하는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논문은 총 18.8%(13건)으로 나타나 공개된 재정정보의 활용 정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에 사용될 재정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정보공개 포털 중 열린재정보다는 지방재정 365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열린재정의 학술연구 목적으로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지방재정의 경우 주로 연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계량분석을 위한 통제변수 구성에 용이하고, 패널자료 등을 구성하여 검정력(power)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앙재정의 경우 현재 제공되는 재정정보 수준으로는 재정결정 및 재정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가 제한적이며, 정치한 분석을 위해서는 국가 간 비교 또는 개인단위의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인다.

<표 3-8> 학술연구에서 재정정보공개 포털 자료의 활용 실적

구분	합계	수입 관리	예산론	재무 관리	재정 결정·효과	재정 통계	지출 관리
중앙재정	42	-	6	7	23	1	6
지방재정	27	2	5	1	9	-	10
공개포털 정보활용	13	2	2	-	4		5

7) 한국재정학회(재정학연구), 한국행정학회(한국행정학보), 한국재정정책학회(재정정책논집) 등 4종이며 분석기간동안 게재된 논문은 총 474건으로 그 중 재정분야 논문은 69건(14.6%)이다.

5. 재정정보 이용현황에 대한 집단간 비교·분석

재정정보 이용 실태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의 주요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전문가와 국민의 재정정보의 이용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정정보 공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 간 설문조사 응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일반국민의 경우 예산 사용내역 확인(56.4%), 예산규모 파악(47.8%) 등을 위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은 학술연구(66.7%)와 국가정책수립 및 평가(49.2%)를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정보 습득 경로는 일반국민은 언론(73.7%) 및 인터넷(60.4%)을 주로 활용하고 전문가는 정부간행물(58.8%)이나 정보공개 포털(55.1%)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공개 포털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국민은 43.9%인 반면 전문가 집단은 88.8%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직업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재정정보 공개 포털 이용률은 일반국민 59.6%, 전문가 94.2%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주기는 두 집단 모두 분기별 1회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섯째, 재정정보 공개 포털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국민 56.1점, 전문가 55.8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일반국민은 홈페이지 접근성(58.0점)항목에서 최고점을 획득하였으며 전문가는 정보의 정확성(68.3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최저항목은 일반국민은 정보의 충분성(54.1점), 전문가집단은 정보의 충분성(44.8점)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요가 가장 높은 재정정보를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은 집행상황(50.8%)과 재정사업 내용(47.1%)이 가장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집단은 예산규모(47.4%)와 재정사업 내용(41.1%)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9> 재정정보 이용 현황 분석 결과

구분	일반국민	전문가
재정정보 이용 목적 (중복응답)	- 예산 사용 내역 확인(56.4%) - 예산규모 파악(47.8%)	- 학술연구(66.7%) -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49.2%)
재정정보 습득 경로 (중복응답)	- 언론매체: 73.7% - 인터넷(공개포털 제외): 60.4	- 정부간행물: 58.8% - 정보공개포털: 55.1%
재정정보 공개 포털 인지도	공개포털 인지도: 43.9%	공개포털 인지도: 88.5%
재정정보 공개 포털 이용 및 방문 빈도	- 이용률: 59.6% - 분기별 1회: 47.8%	- 이용률: 94.2% - 분기별 1회: 36.9%
재정정보 공개 포털 만족도	- 종합 만족도: 56.1점 (최고) 홈페이지 접근성: 58.0점 (최저) 정보의 충분성: 54.1점	- 전반적 만족도: 55.8점 (최고) 정보의 정확성: 68.3점 (최저) 정보의 충분성: 44.8점
재정정보 수요 (중복응답)	- 집행상황: 50.8% - 재정사업내용: 47.1%	- 예산규모: 47.4% - 재정사업내용: 41.1%

향후 재정정보 공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반영하고 재정정보 수요자의 요구(needs)에 부합하는 정책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 간에 재정정보공개 포털에 대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집단간 평균비교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⁸⁾ 분석 결과 정보의 정확성과 충분성은 1%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보의 만족도는 5%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는 일반인에 비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정보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많으나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요자별 맞춤형 재정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국민들에게는 제공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 인포그래픽스 등을 적극적으로

8) 평균비교검정은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집단은 학술연구, 정부정책 등과 관련된 조사·분석 등에 필요한 재정정보를 공개포털을 이용하여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정합성 검증과 정보 모니터링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10> 전문가 및 국민의 포털이용 만족도 평균비교검정 결과

구분	전문가(n=211) 평균 (표준편차)	일반국민(n=130) 평균 (표준편차)	t값
정보 접근성	2.0 (0.903)	2.67 (0.912)	-0.674
정보 정확성	2.27 (0.724)	2.70 (0.966)	-4.650**
정보 적시성	2.95 (0.939)	2.80 (0.972)	1.474
정보 충분성	3.21 (0.895)	2.84 (0.967)	3.517**
정보 만족도	2.81 (0.890)	2.80 (0.911)	10.114*

주 1) * $p < 0.05$, ** $p < 0.01$

2) 정보 정확성은 levene의 등분산 가정 미충족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재정정보공개 포털의 항목별 만족도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한 결과⁹⁾ 전문가 집단과 일반국민 모두 정보의 적시성과 충분성에서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9) IPA분석은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분석 시 아래의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구분	만족도	중요도	특성
상대적 강점	High	High	현 수준 유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유지 관리	High	Low	현 수준 유지를 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
최우선 개선	Low	High	향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중점 개선	Low	Low	향후 점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표 3-11〉 IPA 분석 결과

구분	만족도		중요도* (상관계수)		영역	
	전문가	국민	전문가	국민	전문가	국민
정보 접근성	60.00	57.99	0.617	0.490	상대적 강점, 유지 관리	유지 관리
정보 정확성	68.27	56.87	0.442	0.691	유지 관리	상대적 강점
정보 적시성	51.15	55.88	0.657	0.667	최우선 개선	최우선 개선
정보 충분성	44.81	54.10	0.751	0.665	최우선 개선	최우선 개선

주) 중요도는 4개 평가 항목과 전반적 만족도 간 상관분석을 통해 산출함

<그림 3-18>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IPA 분석 결과



IV.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 분석

1. 델파이조사 개요

수요자의 재정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재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 보완의 일환으로 델파이조사를 수행하였다. 델파이조사는 “예측하려는 문제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일련의 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기법”으로(이종성, 2016:7), 특정 문제에 대한 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하여 해결하고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비대면¹⁰⁾으로 취합하고 이를 모든 패널들과 공유하여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가는 방법이다. 조사 절차는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판단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거를 두고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환류(feedback), 응답자의 익명성, 통계적 집단반응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이종성, 201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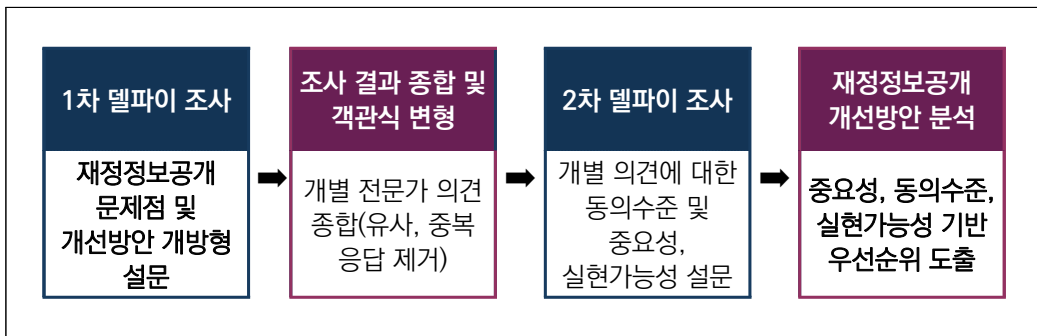
델파이 조사단은 dBrian 등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재정분야에 종사하는 학계, 정부기관, 시민단체의 전문가 15인을 선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재정정보공개에 있어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18년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2회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재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①공개 대상자료의 개선, ②공개 방법의 개선, ③열린재정 개선방안, ④재정정보 공개의 장애요인 등에 대해 기존의 인식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개방형 설문을 진행하였다.

10) 델파이 조사가 통상의 전문가 자문회의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의 차이점은 델파이가 갖는 비대면과 익명성의 특성이다. 전문가 자문회의 등은 특정 집단을 모아두고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수의견이 무시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권위있는 참석자 의견이 미치는 영향, 기존에 취한 입장의 고수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델파이조사는 비대면으로 수행하며, 최초 의견을 반복적으로 조율해가는 과정이 수반되어 대면 면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2차 조사에서는 회수된 응답지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하여 1차 델파이조사의 결과에서 나온 개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동의수준, 재정정보 공개 문제점에 대한 중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동의수준과 실현가능성을 리커드 5점 척도¹¹⁾를 통해 조사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정보공개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들을 도출하였다.

〈그림 4-1〉 델파이 조사 진행 절차



2. 델파이 조사를 통한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

1) 공개대상 재정정보 확대

재정정보 공개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일반국민의 만족도는 51.4점, 전문가 44.8점으로 정확성, 적시성 등의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재정정보 공개에 있어 공개되는 데이터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재정정보의 수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정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내역사업이나 세목별 정보

11) 동의 수준: 매우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중요성: 매우 중요하다~매우 중요하지 않다
실현가능성: 거의 확실하다 ~ 거의 불가능하다.

등 세부적인 정보제공의 부족(4.62점), 재정성과와 집행관련 정보제공 부족(4.38점), 수요자 맞춤형 재정정보 가공 부족(4.08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는 중앙·지방·교육·공공기관 등 분산된 재정정보의 연계 및 통합제공(3.46점), 보다 구체화된 재정정보 제공(4.08), 시계열화 된 재정정보 제공(4.15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 중 시계열 자료 제공이나 세부사업 별 구체화된 정보 제공 등은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나 분산된 재정정보의 연계를 통한 통합 제공은 실현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공개 대상 재정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중요성)	개선방안(실현가능성)
• 세부사업(내역사업 등) 관련 정보 부족(4.62)	• 재정정보의 연계 및 통합제공(3.46)
• 재정사업별 성과정보 제공 부족(4.38)	• 세부사업(내역사업 등) 정보공개 강화(4.08)
• 세목별 정보제공 부족(3.92)	• 성과정보 공개 강화(3.85)
• 수요자 맞춤형 재정정보 가공 부족(4.08)	• 국회수준의 사업설명자료 제공(3.92)
• 재정사업별 재정집행자료(집행 실적 등) 부족(4.23)	• 시계열화 된 자료 제공(4.15)

주) 중요성 : 3.94 / 실현가능성 평균 : 3.84 / 5점 척도

위에서 기술한 공개 대상 재정정보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금운용 관련 정보제공(4.08점),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제공 부족(3.92점), 출연금 및 융자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3.85점), 결산정보(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3.85점) 등이 중요성이 높은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제공 정보별 산출주기, 산출방식, 자료 제공 부서 등을 명시

한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방안과 재정정보의 제공주기나 공개시기 등을 법규를 통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수요자 맞춤형 정보가공 기능 강화, 국유재산 정보 공개 강화 등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표 4-2> 재정정보 공개 대상 자료 관련 문제점 분석 결과

문제점	의견 동의수준 (평균: 3.85)	중요도 (평균: 3.84)
내역사업, 세부사업 등에 대한 정보 부족	4.54	4.62
재정사업별 성과정보 제공 부족	4.31	4.38
세목별 정보 제공 부족	4.08	3.92
수요자 맞춤형 재정정보 가공을 통한 정보제공 부족	4.08	4.08
재정사업별 재정집행자료(집행 실적 등) 부족	4.00	4.23
출연금 및 용자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3.92	3.85
재정정보별 설명자료(산출방법, 시기, 개념) 등에 대한 설명 부족	3.85	3.54
국유재산 관련 정보제공 부족	3.85	3.69
예비비관련 정보 제공(배정내역 등) 부족	3.77	3.69
결산정보(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3.77	3.85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자료 제공 부족	3.69	3.69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제공(실집행률 등) 부족	3.69	3.92
기금관련 정보제공(운용실적 등) 부족	3.69	4.08
공공기관 관련 정보제공 부족	3.69	3.85
재정정보별 제공 시기가 일치되지 않음	3.62	3.85
재정정보의 시계열 자료 제공 부족	3.54	4.08
국채 등 채무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부족	3.42	3.62

〈표 4-3〉 재정정보 공개 대상 자료 관련 개선방안 분석 결과

개선방안	의견 동의수준 (평균: 4.17)	실행 가능성 (평균: 3.84)
중앙재정,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 재정정보의 연계 및 통합제공	4.77	3.46
세부사업단위(내역사업 포함) 정보공개 강화	4.69	4.08
성과정보(재정사업평가결과, 부처 성과보고서 등) 공개 강화	4.31	3.85
사업설명자료 및 기금운용계획 제공수준(국회제공용수준) 강화	4.31	3.92
재정정보의 시계열자료 제공	4.23	4.15
재정정보의 공개주기 및 공개기간 확정	4.23	4.08
결산정보(재무제표 및 결산보충정보)공개 강화	4.15	3.77
국고보조사업정보(지방대응재원, 지자체배정내역, 실집행률, 지자체/민간보조 등)공개 강화	4.15	3.69
예산 및 결산의 분야별 정보 일치(12대 분야 구분과 16대 분야 구분 일치)	4.15	3.77
제공정보별 설명자료 제공(산출기준, 산출방식 등)	4.08	4.23
국가 간 비교자료 제공 강화(SNA, GFS 등)	4.00	3.46
수요자 맞춤형 재정정보 가공 및 공개(예산 및 결산서 등 국민맞춤형 가공 제공 등)	3.92	3.85
국유재산관련 정보공개 강화	3.92	3.85
예산확정 전 정부예산안 정보제공	3.46	3.54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재정정보공개에 있어 공개 대상 자료의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재정정보 이용 활성화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이용 현황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들 또한 세부사업 등 세부적인 재정정보의 제공과 시계열 자료에 대한 요구, 자료생성주기, 산출근거, 등에 대한 지표별 용어설명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델파이 조사와 이용현황 조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¹²⁾ 또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 모두 재정사업 내용(일반국민, 47.1%, 전문가 41.1%)에 대한 공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재정정보 공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개대상 재정정보의 수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2) '예산현액', 재정상태표상 '당기2금액', '전기1금액' 등 용어에 있어 사용자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재정운용 및 공개되는 지표와 관련된 별도의 해설자료 등 제작이 요구된다.

2) 정보 공개 방식 개선을 통한 접근성 제고

재정정보 공개 방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공개 방식이 지방재정, 교육재정, 공공기관 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4.08점), 정보공개 포털의 정보 분류체계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으며(4.00점), 재정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제한된 정보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4.23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점 중 특히 다운로드 기능의 제한과 분산된 재정정보 공개 제공, 그리고 예산서 등 비정형 자료의 DB화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거나 가공이 어려운 파일형식(pdf 등)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DB 구축과 정보제공방식(포맷)의 다양화와 기능 확대(4.00점)로 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이용자별 사용목적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보제공(3.54점)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비정형 자료의 DB 구축, 재정정보의 시각화 자료 제공(4.08점), 제공 방식(포맷)의 다양화(4.38점) 등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재정정보 공개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패널단 동의수준)	개선방안(실현가능성)
• 지방재정, 교육재정, 공공기관 등으로 분절된 정보 제공(4.08)	• 비정형 재정정보(예산서, 결산서 등)의 DB 구축(4.00)
• 제한된 정보만 다운로드 가능(4.23)	• 재정정보별 제공포맷 확대(4.38)
• 비정형 재정정보(예산서, 결산서 등)의 DB 구축 미흡(4.08)	• 정보이용자별 차별화된 정보제공 강화(3.54)
• 공개정보의 색인정보 부족(3.77)	• 재정정보 시각화 자료 제공 강화(4.08)
• 제공정보의 복잡한 분류(4.00)	• 재정정보 공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3.85)

주) 패널단 동의 수준 평균 : 3.96 / 실현가능성 평균 : 3.90 / 5점 척도

재정정보 공개방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이용자별 차별화된 정보제공 기능이 부족(3.69점)하여 이용자의 사용목적에 부합한 정보제공

이 요구되고 있으며 재정정보 제공 포맷이 부족한 것(4.23점)도 주요한 개선과제로 분석되었다. 한편 개선방안 중에서는 전술하였던 방안들 외에도 재정정보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3.85점)과 정보이용자별 차별화된 정보제공 강화(3.54점) 등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스마트기기가 점차 정보습득의 주요 매체로 자리잡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추진하기 전에 모바일 환경에서도 PC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 개선이 선행되는 것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아울러 동일한 정보를 수요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표 4-5> 재정정보 공개방법 관련 문제점 분석 결과

문제점	의견 동의수준 (평균: 3.96)	중요도 (평균: 3.90)
제한된 정보만 다운로드 가능	4.31	4.08
지방재정, 교육재정, 공공기관 등 분절적으로 재정정보 제공	4.31	4.23
비정형 재정정보(예산서, 결산서, 성과보고서 등)의 속성정보 이용 DB구축 미흡	4.23	4.08
공개정보의 접근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색인정보 부족	3.92	3.77
제공정보가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못함	3.92	4.00
정보이용자별(국민, 전문가) 차별화된 정보제공 부족	3.85	3.69
제공 정보별 제공포맷(엑셀, 한글, PDF등) 부족	3.77	4.23
스마트기기 등 모바일기기 정보접근성 부족	3.38	3.15

<표 4-6> 재정정보 공개방법 관련 개선방안 분석 결과

개선방안	의견 동의수준 (평균: 3.93)	실현 가능성 (평균: 3.96)
비정형 재정정보(예산서, 결산서, 성과보고서등)의 속성정보 이용 DB구축	4.46	4.00
정보 제공 포맷(엑셀, 한글, PDF 등) 다양화	4.15	4.38
정보이용자별(국민, 전문가) 차별화된 정보제공 강화	3.92	3.54
재정정보 시각화 자료(도표, 인포그래픽 등) 제공 강화	3.62	4.08
재정정보공개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3.46	3.85

3) 정보공개포털(열린재정) 기능 강화

중앙정부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열린재정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재정정보가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알리오 등 정보생성 기간에 따라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어 열린재정의 종합정보 제공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4.54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외에도 재정사업별 예산, 결산, 성과정보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종합적인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4.23점)이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제공되는 정보의 설명 부족, 재정이슈별 정보제공 부족(4.31점), 제한된 시계열 정보의 제공(4.15점)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편 개선방안으로는 사회복지, 일자리, 여성 등 주요 재정이슈별로 재정정보의 분류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3.77점), 타 재정정보 공개 포털과 연계강화(3.77점), 수요자 친화적인 재정정보 분류체계 개선(3.92점), 예산편성 관련 정보 제공 강화(3.77점), 제공자료의 시계열 자료 제공 확대(4.15점)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이 중 재정정보 시계열 자료 제공을 제외하고 다른 개선방안들은 개선과제로서 중요성이 크나 실현가능성이 다소 미흡하여 단기간에 개선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열린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패널단 동의 수준)	개선방안(실현가능성)
• 재정정보의 종합 제공 기능 부족(4.54)	• 재정이슈별 정보제공 강화(3.77)
• 재정사업별 예산·결산·성과정보의 분절적 제공(4.23)	• 정보공개 포털 연계 강화(3.77)
• 제공되는 정보의 설명 부족(4.31)	• 포털 내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3.92)
• 재정이슈별 정보제공 부족(4.08)	• 정부요구안, 추경 등 예산편성 자료 제공 강화(3.77)
• 제한된 시계열정보 제공(4.15)	• 재정정보 시계열 자료 제공 강화(4.15)

주) 패널단 동의 수준 평균 : 4.09 / 실현가능성 평균 : 4.03 / 5점 척도

열린재정 관련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술하였던 문제점 외에 수요자 맞춤형 재정정보 제공기능 부족(4.00점), 복잡한 정보분류체계(4.15점), 제공되는 정보의 양 부족(4.08점), 재정정보의 검색기능 미흡(4.08점) 등 또한 열린재정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평가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해당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개선방안 외에 당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선방안으로는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제공 기능 강화(4.00점), 재정정보 공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4.00점), 포털에서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 제공(4.23점), 재정정보의 검색기능 강화(4.00점) 등이 제안되었다.

<표 4-8> 열린재정 관련 문제점 분석 결과

문제점	의견 동의수준 (평균: 4.09)	중요성 (평균: 4.03)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관련 재정정보 종합제공기능 부족	4.54	4.54
재정사업별 예산·결산·성과정보의 분절적 제공	4.46	4.23
제공되는 정보의 설명 부족(산출근거, 생성주기 등)	4.31	4.31
재정이수(사회복지, 일자리, 저출산 등)별 정보제공 부족	4.23	4.08
시계열정보의 제한적 제공	4.15	4.15
복합통계분석에서 제한적 정보의 제공	4.08	3.85
수요자 맞춤형 재정정보 제공기능 부족	4.08	4.00
정보분류체계(메뉴구성 등)가 복잡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려움	4.00	4.15
공개정보별 데이터 공개기간이 상이함	4.00	3.77
제공되는 재정정보의 양이 부족함	3.92	4.08
재정제도 및 재정용어 등에 대한 설명 부족	3.92	3.69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재정정보 제공 부족	3.92	3.85
공개정보 다운로드를 위한 포맷변환(엑셀, 한글 등)기능 부족	3.85	3.69
원하는 재정정보의 검색기능 부족	3.85	4.08

<표 4-9> 열린재정 관련 개선방안 분석 결과

개선방안	의견 동의수준 (평균: 4.07)	실현 가능성 (평균: 3.82)
재정이수(사회복지, 일자리, 저출산 등)별 정보제공 강화	4.38	3.77
국가재정,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 정보공개 포털 연계 강화(자료의 종합 제공 등)	4.38	3.77
포털내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	4.23	3.92
정부요구안, 추경 등 예산편성자료 제공 강화	4.23	3.77
재정정보공개 포털(지방재정, 교육재정 등)의 정보 분류체계 일치	4.15	3.54
재정정보의 시계열자료 제공 강화	4.15	4.15
국고보조금 정보(실집행액, 자치단체보조액 등) 제공기능 강화	4.15	4.00
재정정보 공개 중장기계획 수립	4.15	4.00
열린재정으로 각종 재정정보 공개 일원화	4.15	3.23
공개 재정정보의 설명(산출근거 등) 제공	4.08	4.23
복합통계분석 대상 확대	4.08	3.69

개선방안	의견 동의수준 (평균: 4.07)	실현 가능성 (평균: 3.82)
연구자와 국민간 제공정보 차별성 확보 (사업코드 제공 등)	4.00	3.85
정보분류체계(메뉴구성 등) 재구성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4.00	3.85
수요자 맞춤형 재정정보 가공 콘텐츠 제공 강화 (국민 관심사 맞춤형 테마통계 제공 등)	4.00	3.92
세부사업별 예산변경(이월, 불용 등) 자료 제공	3.77	3.85
재정정보 검색 및 분석기능 강화 (특정 재정이슈, 비목 등 검색 시 인포그래픽 등 자료 생성)	3.69	4.00
개인별 로그인 기반 맞춤형 재정정보 제공 강화 (필요 보조금 등 제안, 개인별 맞춤 사업 설명 등)	3.54	3.38

재정정보 이용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보듯 일반국민의 공개포털 사용률은 45.1%에 불과하고 재정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한 포털 미사용률이 11.5%로 나타나고 있으며 열린재정을 통한 학술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 언론 등 타 매체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부정확한 정보제공에 따른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정보공개 포털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부정확한 정보 습득에 따른 재정정책 및 재정운용에 대한 편의(bias)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정정보공개포털의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홍보방법의 다각화를 병행하여 재정정보공개 포털의 낮은 인지도(일반국민 인지도 43.9%)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재정정보 공개 장애요인 해소

재정정보 공개에 있어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지방재정 및 공공기관 등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포털 간에 자료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4.54점)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제기되었으며, 정부기관 등 재정정보 생성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4.23점), 재정제도 및 재정용어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부족(4.00점), 재정정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과 재정정보 공개 주체 간 소통 수단의 부족(4.08점) 등이 주

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응답한 전문가들 간 견해 차이는 있으나 공개된 재정정보의 신뢰성 검증의 부족(4.08점) 또한 재정정보 공개의 장애요인으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장애요인은 가시적으로 재정정보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정보 공개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성이 있으므로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4-10> 열린재정 관련 개선방안 분석 결과

문제점	의견 동의수준 (평균: 4.12)	중요성 (평균: 4.04)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과 자료연계 부족	4.69	4.54
재정정보 공개주체(부처 등)의 소극적 태도	4.38	4.23
재정제도 및 통계 등 용어의 어려움에 따른 국민 이해도 부족	4.23	4.00
국민의 재정정보 수요 파악을 위한 소통 수단 부족	4.23	4.08
재정정보공개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	4.23	4.08
재정정보 품질점검 및 평가체계 부재	4.23	4.15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 인지도 부족	4.15	3.85
재정분야 비정형 자료(보고서 등)의 재정정보로 미인식	4.08	3.92
재정관리시스템과 재정정보공개 포털의 연계 부족	4.08	3.85
일원화된 재정정보 공개정책 추진체계 부재	3.92	3.85
수요자 맞춤형 재정정보 제공 기능 부족	3.85	3.92
공개된 재정정보의 신뢰성 검증 부족	3.77	4.08
비공개 재정정보에 대한 판단준거 부재	3.77	4.00

델파이조사에서 제시된 장애요인들은 이용현황조사에서 도출된 주요 장애요인과 맥을 같이한다. 이용현황 조사에서도 일반국민은 폐쇄적 정부문화(31.0%),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 규제(23.2%), 데이터 품질의 한계(22.0%)를 주요 문제로 제기하고 전문가 또한 데이터 품질의 한계(36.9%), 폐쇄적 정부문화(33.1%), 데이터 개방정책 설계의 미비(20.0%) 등이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정보공개와 데이터의 이용 및 활성화가 분절적으로 추진되

고 있으며, 재정정보 내에서도 분야별(지방재정, 교육재정, 중앙재정)로 분절화된 관리를 야기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적극적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문화 확립과 더불어 재정정보 공개와 이용 및 활성화 정책의 통합이 요구되며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계획과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재정정보 공개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첫째, 정보공개 수준, 둘째 정보공개 방식과 셋째, 재정정보공개 포털인 열린재정으로 구분하였으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확대나 DB구축 등과 같이 법률이나 제도변경 없이 추진가능한 단기과제와 유관부처와의 협조, 시스템 개편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였다.

1) 공개 대상 재정정보의 수준 제고

정보공개 수준 제고를 위해 정보의 양을 확대함과 아울러 공개정보의 시계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개 정보의 확대 방안으로 현재 열린재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세부사업별 자료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세부 정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업의 추진 및 집행이 지방재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재정사업에 관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개방식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고 기존 세부사업관련 자료를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 사업별 예산총액 외에도 비목(인건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예산의 구성이나 집행형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공개정보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부사업별 재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연말지출 비율,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행정운영경비 비중 등과 같은 지표를 중앙정부 재정운용에도 적용하여 제공할 경우 재정집행과 관련된 보다 심층적인 시계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공개되고 있는 재정 정보가 조사·분석 등에 활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 구축이 가능한 재정지표를 선정하여 구축하거나 신규 재정지표 개발을 통해 정보제공 양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정보 제공 시점이 중앙재정은 2007년부터, 지방재정은 2000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물론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프로그램 예산체계로의 제도변화로 2007년 이전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운용에 있어 계량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확충하여 통계적 분석 및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작성함으로써 현재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정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재 1년 단위로 제공되는 정보 중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은 재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것도 시계열 자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보의 공표시기도 현재 ‘월 초’ 등의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으며, 연 1회 제공되는 정보도 공표시점을 통일하여 정보비용자가 별도로 제공시기를 확인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현재 다양한 재정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각 제공정보별 산출방식, 산정 공식, 지표별 내용, 정보제공 주기 등에 대한 정보는 다소 부실하다. 정보공개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진다면 추가적인 설명자료 없이도 지표의 내용과 산출방식, 그리고 지표가 제공하는 함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는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정보의 의미, 해석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해설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산출방식, 산출을 위해 사용된 자료의 설명, 제공 주기, 지표 생성 및 관리부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치자료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정보 제공 외에도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지표를 내용으로 한 ‘재정정보 해설서’를 발간물 형태로 제공하여 포털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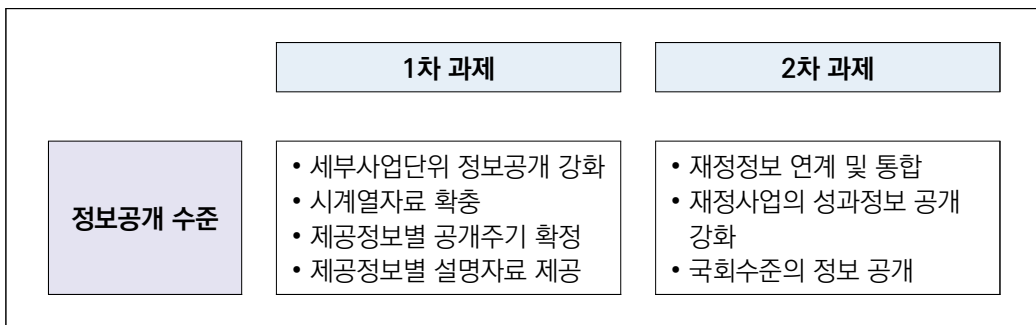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정보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한 사업별 세부정보 확충이 요구된다. 현재는 dBrain과 e호조 등으로 재정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정부의 세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수행할 경우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나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 분절화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정보제공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연계 및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나 출연금을 통한 사업의 기관별 대응재원 규모와 실행행률 제공,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의 유사·중복도 등 새로운 재정정보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성과정보를 확충하여 재정의 투입과 성과를 연계한 효율성 및 재정사업의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재정사업평가, 부처별 성과계획서,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정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이나 평가결과의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부사업별 집행률을 활용한 연말지출비율,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예산정보를 활용한 중기재정계획 반영률, 기관별 업무추진비 절감률, 인건비 비율 등의 다양한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예·결산 심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사업설명자료를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제출하는 사업정보는 현재 열린재정에서 제공하는 사업설명 외에도 세부사업 내의 예산편성, 사업 목적 및 주요 내용, 사업근거, 최초사업 시작년도, 계속사업 여부, 사업규모, 사업시행방

법, 사업시행주체, 사업 수혜자, 성과지표, 성과달성도, 사업집행절차, 중기재정계획 상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정보에 대한 공개가 가능해지면 세부사업별 심층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2> 정보공개 수준 확대 관련 개선과제



2) 정보공개 방식의 다양화와 접근성 강화

정보공개 방식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비정형 정보의 DB화이다. 비정형 정보는 미리 정의된 데이터 모델이 없거나 특정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정정보 중에서도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수의 비정형 데이터가 존재한다. 열린재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사업평가 결과보고서, 부처별 성과계획서, 지방재정공개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방재정분석 결과보고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치화 하거나 정형화된 포맷으로 기호화하는 ‘코딩(coding)’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정정보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정형 자료를 DB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재정사업평가의 경우 현재는 재정사업평가결과보고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예산집행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사업효과성, 사업효율성 제고 노력 등의 세부 점수와 종합점수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 수치화하거나 혹은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을 DB화하여 사업별로 제공

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정보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표 4-11> 비정형 자료의 DB화 예시

현재

AA사업		
예산집행 적절성	26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율 99.3%이고, '17년은 99.5%로 나타나 ...
계획 달성도	50	성과지표는 국민신문고 신속처리도와 ...
사업 효과성	7	효율적 대응을 위한 대내...외의 업무기반 ...

개선 후

사업명	종합점수	예산집행 적절성	목표달성도
XX사업	85	25	7
AA사업	64	15	10
BB사업	75	25	5
CC사업	75	25	5
DD사업	75	2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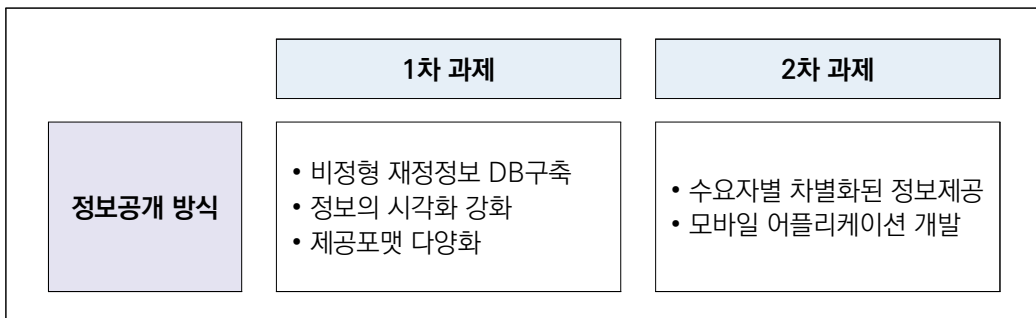
또한 정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표 외에도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정보의 시각화가 필요하며,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정보공개포털별로 제공되는 포맷 형식을 통일하고 포맷형태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포털을 중심으로 제공포맷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수요자별 차별화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재정정보 이용 목적이 상이하므로 이용자의 목적에 부합한 정보제공과 이용자의 재정정보의 이해수준을 고려한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따라서 재정정보공개에 있어 크게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구분하여 수요자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정보는 용어의 순화와 더불어 인포그래픽 등의 전달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정보를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에 대한 정보제공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공과 함께 재정정보의 가공이나 분석이 용이한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아동, 고령자, 취업구직자, 여성 등 개인별 특성에 맞춘 정보제공과 일자리, 국정과제, 안전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재정정보를 제공하면 수혜자의 정보충분

성을 크게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사업 속성개발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선사항은 추후 재정관리시스템 개편 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외에도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한 정보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한 정보접근성 개선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정보 공개 포털에 접근은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지만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정보제공 포털의 개선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이용활성화가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 정보공개 방식의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관련 개선과제



3) 열린재정 개선 과제

열린재정은 '18년 1월에 전면개편이 이루어져 타 정보공개포털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장점이다. 다만 열린재정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술하였던 정보 공개수준 및 제공방식 외에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개선방안으로 시계열자료 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계량분석을 위한 통계처리 방법에 있어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에 필요한 횡단면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계열자료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중앙재정은

예산 규모 추이, 지표별 변화 추이 등을 활용하여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등의 시계열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계열 자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 2007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소관별 세출예산 등의 자료를 과거 자료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시계열자료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열린재정에서 제공되는 지방재정 운용 정보(전국세입예산액 추이, 재원별 세입예산액 등) 역시 지방재정정보공개 포털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단년도 자료제공이 이루어지는 정보(분야별 세출예산액, 시도별 세출예산액 등)는 최신자료를 업데이트 하여 정보제공의 적시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시계열 자료 구축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비정형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계획서 상의 정보들이 시계열로 제공되고 이를 예산·결산 정보와 연계할 경우 재정정보 포털에 기반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4-12> 비정형 자료와 재정정보의 시계열 제공

현 재			
사업명		예산	
XX사업		85	
AA사업		64	
BB사업		75	

개 선 후			
사업명		예산	결산
XX사업		85	25
AA사업		64	15
BB사업		75	25
CC사업		75	25
DD사업		7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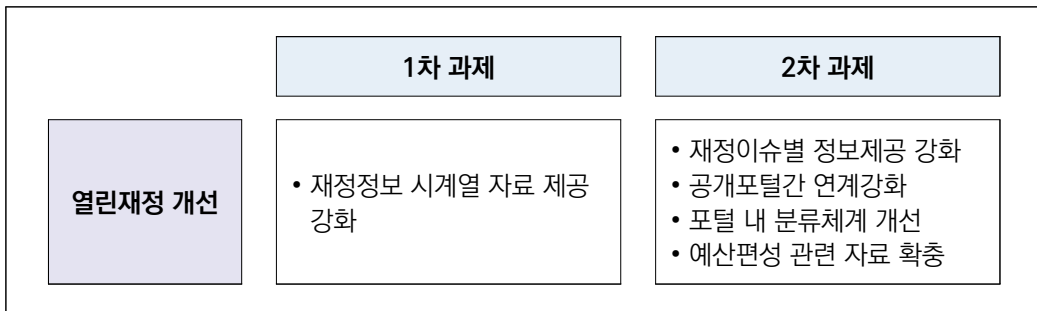
AA사업			
예산집행 적절성	26	평가대상기간 3년 평균 집행을 99.3%이고, '17년은 99.5%로 나타나 ...	
계획 달성도	50	성과지표는 국민신문고 신속처리도와 ...	
사업 효과성	7	효율적 대응을 위한 대내... 외의 업무기반 ...	

사업명	예산	결산	성과정보 (평가점수 등)
XX사업	85	25	26
AA사업	64	15	50
BB사업	75	25	30
CC사업	75	25	40
DD사업	75	25	27

중·장기적으로는 예산관련 자료의 확충과 포털 내 분류체계 개선, 재정이슈별 정보제공 강화 및 재정관리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관리시

시스템 간 연계강화는 자료 확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과제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재정정보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중앙재정 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공개의 한계점을 완화하고 국가전체의 재정운용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4> 열린재정 관련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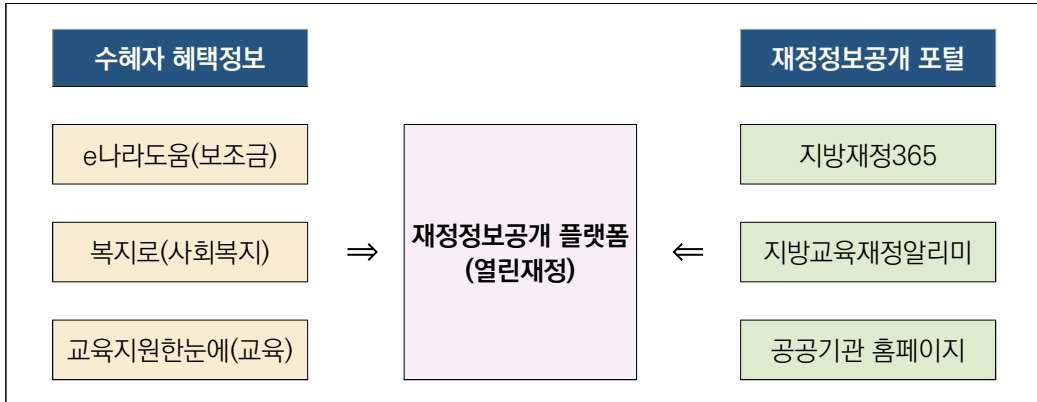


재정정보 공개포털 외에도 사회복지 관련 정보는 ‘복지로’ 포털에서 제공하고 교육 관련 정보는 ‘교육지원한눈에’ 포털에서 예산 집행비율 등의 정보는 부처·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정보 공개 실태하에서 수혜자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간 연계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재정정보제공 플랫폼의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재정관리시스템 개발 시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를 강화하여 부처의 예산편성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및 결산까지 정보 관리가 일원화되고 다양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등 재정정보공개 포털을 비롯하여 복지로, 부처홈페이지 등 공개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공개 제공주체 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재정정보 공개가 강화되고 정책 및 제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정부의 재정정보공개 서비스도 개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혜자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재정정보의 주요 습득매체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보 홍보와 수혜자의 이용 독려를 위한 활용 교육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재정정보 공개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5> 재정정보공개 관련 플랫폼 연계



V. 결론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정부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활동의 수치적 표현인 재정정보는 국민에게 직관적으로 정부활동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전문가에게는 정부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정보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국민 및 전문가의 재정정보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재정정보 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정정보 이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현가능성 있는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재정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보 공개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의 재정정보에 대한 인지도는 41.1%에 불과하여 재정정보의 공개 및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습득하는 재정정보도 부정확성이나 왜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정보 포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 제고, 가시성과 가독성이 높은 사용자 친화적 자료 제공 등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이용현황 조사 결과 중 특징적인 점은 재정정보의 습득 경로가 주로 정부가 발행하는 발간물(58.8%), 재정정보공개 포털(55.1%) 및 언론매체(55.6%)를 복합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공개수단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보 공개포털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55.8점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 정보의 정확성(68.3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정보의 충분성(44.8

점)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문가 집단에서도 제공되는 통계자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용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정정보 공개 정책의 장애요인으로 일반국민은 폐쇄적 정부문화(34.0%)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23.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데이터 품질의 한계(36.9%)와 폐쇄적 정부문화(33.1%) 순으로 나타났다.

텔파이 조사에서 재정전문가가 지적한 재정정보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분산되어 제공되는 재정정보를 통합·연계하고 세부사업(또는 내역사업)관련 추가 자료 공개 및 시계열화된 재정정보를 제공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재정정보 공개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공개되는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 포털별 상이한 분류체계를 정비하며, 정보제공 방식(포맷)을 다양화하는 등 재정정보공개 포털의 접근성과 사용자 친화적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정보공개 포털인 열린재정은 사회복지, 여성, 일자리 등 주요 재정이 슈별로 재정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타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털과의 연계 강화 및 예산편성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시계열 자료 제공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재정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시계열 자료 확충, 세부사업단위의 정보공개 강화, 비정형정보로 제공되는 재정정보의 DB화를 통한 수치자료의 확충, 제공 방식(포맷)의 다양화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재정정보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국민의 재정정보 이용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정보공개 포털 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재정정보의 산출방식, 재정지표가 의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재정정보 해설자료의 제공을 통해 수요자가 제공되는 재정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정정보 공개주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정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재정정보의 통합제공을 위한 연계 강화, 수요자별 차별화된 재정정보의 제공,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

정보 제공의 범위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국민 및 전문가에게 공개된 재정정보의 이용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전문가 등을 통해 재정정보 이용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그동안 부족하였던 재정정보공개 분야의 연구라는 학문적 기능과 함께 향후 재정정보공개 정책추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재정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할 공무원의 이용 현황을 조사·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며, 구체적으로 재정정보별 이용 수요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정정보 공개 수단별, 그리고 공개포털별(지방재정, 중앙재정, 지방교육재정 등) 이용 현황 조사 및 개별 개선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재정정보 공개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재정정보 이용 수요자별, 제공방식, 제공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조사·분석 등은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강동관. (2011). “공개정보를 이용한 기업투명성의 측정과 활용: 사업현황의 투명성과 대리인 비용”. 『재정정책논집』, 13(2): 55-8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2017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 곽관훈. (2006).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재정공시제도”. 『지방자치법연구』, 6(2): 191-213.
- 권오성. (2014). 「재정회계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금재덕, 박용찬. (2010). “지방재정공시 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서울시 주민과 대표간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의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0(3): 59-82.
- 김봉환, 전성만. (2014). “현행 국가 결산보고서상 재정지표 분석과 새로운 재정지표의 제안”. 『한국행정학보』, 49(1): 59-88.
- 김주희, 정아름. (2016). 「정보 유용성 향상을 위한 국가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서울: 감사연구원.
- 김지윤. (2014). “한국 유권자와 이슈 II: 세금과 정부 지출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아산정책연구원 Issue Brief』, 2014(5): 1-13.
- 문병효. (2016). “국가재정법 10년 결산, 한계와 개혁과제”. 『일감법학』, 35: 3-34.
- 박기영. (2012). 「재정민주주의와 한국재정」, 서울: 대자커뮤니케이션.
- 배인명. (2009). “우리나라 지방재정정보공개에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지방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2(3): 83-103.
- 서재만. (2010). 「재정정보 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윤광석, 권오성, 이건. (2016). 영국 ADRC(Administrative Data Research

- Center)의 행정데이터 활용체계 벤치마킹.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이정희. (2016). “우리나라 재무행정학의 연구경향 및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50(5): 201-246.
- 이종성. (2016). 『델파이 방법』. 경기도: 교육문화사.
- 이창희, 이범연, 이수용. (2009). “한강수계 의무적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의 우선순위 설정”. 『환경정책연구』, 8(4): 25-36.
- 임성일. (2006).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대되는 효과”. 『지방재정』, 39: 13-29.
- 임익상, 하연섭. (2016). “국가재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의정논총』, 11(1): 93-118.
- 임현. (2009).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43(3): 771-792.
- IMF. (2001). Code of Good Practices on Fiscal Transparency.
- Kopits G. and Craig. J. (1998). Transparency in Governance Operation. IMF Occasion Paper. 158.
- Vishwanath, T. and Kaufmann. D, D. (1999). *Towards Transparency in Finance and Governa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Processed.

부록

1. 설문조사지(일반인 및 전문가)

□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지

SQ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SQ 2) 귀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은 설문종료

1. 만 19-29세

2. 만 30-39세

3. 만 40-49세

4. 만 50-59세

5. 만 60세 이상

문 1) 귀하는 올해(2018년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예산규모, 부채규모, 예산성과 등)를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문2로 이동

문 1-1) (문1에서 “1” 응답자만) 접하신 적이 있다면, 재정정보에 대해 직접 검색 또는 탐색을 해본 신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 문1-1-1로 이동

2. 없다 → 문1-1-3로 이동

문 1-1-1) (문1-1에서 “1” 응답자만) 직접 찾아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재정정보(예산규모, 부채규모, 예산성과 등)를 습득하셨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2. 정부발간물(보도자료 등)
3. 인터넷(정부 부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검색 등)
4.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5. 기타(_____)

문 1-1-2) (문1-1에서 “1” 응답자만) 어떤 목적으로 재정정보(예산규모, 부채규모, 예산성과 등)에 대해 찾아보셨습니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가 궁금해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3. 예산 사용에 따른 성과가 궁금해서
4. 국가 부채가 궁금해서
5.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궁금해서
6. 국민 복지로 예산이 얼마나 쓰이는지 궁금해서
7. 학술연구 목적
8. 기타(_____)

문 1-1-3) (문1-1에서 “2” 응답자만) 직접 검색해 본 적이 없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재정정보(예산규모, 부채규모, 예산성과 등)를 접하게 되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2. 정부발간물(보도자료 등)
3. 인터넷(정부 부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검색 등)
4.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5. 기타(_____)

문 2) 귀하는 국가가 예산규모, 집행상황, 재정투입 사업내용, 예산성과, 부채규모 등에 관련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면, 공개하는 국가재정정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 매우 신뢰할 것이다
2. 약간 신뢰할 것이다
3. 보통이다
4.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5. 전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문 3) 현재, 국가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의 예산규모, 집행상황, 재정투입 사업내용, 예산의 성과, 부채규모, 세입내용, 국가 비교 자료 등 재정정보공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신 홈페이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4. 잘 모른다 →

문4로 이동

※ 다음 각각의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를 이용 후 응답해 주십시오.

문 3-A) 다음은 재정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각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후 어떤 홈페이지가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리한지 한 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 기재부 열린재정(<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main.do>)
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portal/main.do>)

문 3-1) (문3에서 “1,2,3” 응답자만) 알고 계셨다면, 한번이라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문5로 이동

문 3-2) (문3-1에서 “1” 응답자만) 국가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1. 주 1회

2. 월 1회

3. 분기별 1회

4. 기타()

문 3-3) (문3-1에서 “1” 응답자만) 그렇다면, 이용하신 홈페이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접근성)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기 쉽다	1	2	3	4	5
2) (정확성)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다	1	2	3	4	5
3) (적시성)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제공된다	1	2	3	4	5
4) (충분성) 원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	1	2	3	4	5
5)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문 3-4) (문3-1에서 “1” 응답자만) 귀하는 재정정보 공개에 있어, 장애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폐쇄적 정부 문화
2.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 규제
3. 데이터 품질의 한계
4. 데이터 개방 정책 설계의 미비
5. 정보보안에 대한 위협
6. 기타(_____)

문 3-5) (문3-1에서 “1” 응답자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 4) 다음은 국가가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중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1. 예산규모
2. 집행상황
3. 재정투입 사업내용
4. 예산성과
5. 부채규모
6. 세입내용
7. 국제 비교자료
8. 기타(_____)
9. 알고 싶은 정보 없음

- 문 5)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정정보 공개가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귀하는 향후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문6-1로 이동

- 문 6-1) (문6에서 “2” 응답자만)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2. 재정에 관심이 없어서
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 학업 및 생계로 인해 바빠서
5. 기타(_____)

응답자 특성

DQ 1)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 5. 광주 | 6. 대전 | |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 11. 충북 | 12. 충남 | |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 17. 제주 | | | |

DQ 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1. 중학교 졸업 이하 | 2. 고등학교 졸업 |
| 3. 대학교 졸업 | 4. 대학원 졸업 이상 |

DQ3) 실례지만,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임업/어업
2. 자영업
3. 판매/서비스직
4. 기능직/노무직/기술직
5. 사무직/전문직/관리직
6. 가정주부
7. 학생
8. 무직
9. 기타(_____)

□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지

SQ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SQ 2) 귀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은 설문종료

1. 만 19-29세

2. 만 30-39세

3. 만 40-49세

4. 만 50-59세

5. 만 60세 이상

문 1) 귀하는 2018년도 연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예산규모, 부채규모, 예산성과 등)를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문2로 이동

문 1-1) (문1에서 “1” 응답자만)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재정정보(예산규모, 부채규모, 예산성과 등)를 접하셨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등)
2. 정부발간물(보도자료 등)
3. 인터넷(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검색 등)
4.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5. 기타(_____)

문 1-2) (문1에서 “1” 응답자만) 재정정보(예산규모, 부채규모, 예산성과 등)를 직접 찾아 보시는 횟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1. 주 1회

2. 월 1회

3. 분기별 1회

4. 찾아본 적 없음 → 문2로 이동

문 1-3) (문1에서 “1” 응답자만) 어떤 목적으로 재정정보(예산규모, 부채규모, 예산성과 등)에 대해 찾아보셨습니까?

1.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연구용역 포함)
2. 학술연구 및 학습
3. 사업 및 경영
4. 기타(_____)

문 2) 현재, 국가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의 예산규모, 집행상황, 재정투입 사업내용, 예산의 성과, 부채규모, 세입내용, 국가 비교 자료 등 재정정보공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신 홈페이지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4. 잘 모른다 → 문3로 이동

문 2-1) (문2에서 “1,2,3” 응답자만) 그렇다면, 가장 관심 있는 공개 홈페이지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4. 기타(_____)

문 2-2) (문2에서 “1” 응답자만) 한번이라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문3로 이동

문 2-2-1) (문2-2에서 “1” 응답자만) 어떤 목적으로 재정정보(예산규모, 부채규모, 예산성과 등)에 대해 찾아보셨습니까?

1. 국가정책 수립 및 평가(연구용역 포함)
2. 학술연구 및 학습
3. 사업 및 경영
4. 기타(_____)

문 2-2-2) (문2-2에서 “1” 응답자만) 국가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1. 주 1회
2. 월 1회
3. 분기별 1회
4. 기타(_____)

문 2-2-3) (문2-2에서 “1” 응답자만) 그렇다면, 이용하신 홈페이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접근성)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기 쉽다	1	2	3	4	5
2) (정확성)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정확하다	1	2	3	4	5
3) (적시성)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제공된다	1	2	3	4	5
4) (충분성) 원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	1	2	3	4	5
5)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문 2-2-4) (문2-2에서 “1” 응답자만) 공개하는 국가재정정보에 대해 얼마나 신뢰 하십니까?

1. 매우 신뢰한다
2. 약간 신뢰한다
3. 보통이다
4. 신뢰하지 않는다
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문 2-2-5) (문2-2에서 “1” 응답자만) 귀하는 재정정보 공개에 있어, 장애요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폐쇄적 정부 문화
2.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 규제
3. 데이터 품질의 한계
4. 데이터 개방 정책 설계의 미비
5. 정보보안에 대한 위협
6. 기타(_____)

문 2-2-6) (문2-2에서 “1” 응답자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 3) 다음은 국가가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중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1. 예산규모 | 2. 집행상황 |
| 3. 재정투입 사업내용 | 4. 예산성과 |
| 5. 국가부채 | 6. 세입내용 |
| 7. 국제 비교자료 | 8. 기타(_____) |
| 9. 알고 싶은 정보 없음 | |

문 4)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정정보 공개가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정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귀하는 향후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 문5-1로 이동

문 5-1) (문5에서 “2” 응답자만)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2. 재정에 관심이 없어서
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 학업 및 생계로 인해 바빠서
5. 기타(_____)

응답자 특성

DQ 1) 현재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어디이며, 소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정부	2. 기업	3. 학·연	4. 기타
① 중앙정부	① 민간	① 교수	① 비영리법인
② 지자체	② 공공기관	② 연구기관	② 시민단체
③ 국회	③ 협회	③ 학생	③ 기타()

DQ 2)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 5. 광주 | 6. 대전 | |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 11. 충북 | 12. 충남 | |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 17. 제주 | | | |

DQ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1. 중학교 졸업 이하 | 2. 고등학교 졸업 |
| 3. 대학교 졸업 | 4. 대학원 졸업 이상 |

2. 델파이조사 조사지

델파이조사(1차)

I. 재정정보 공개 현황	
1. 재정정보공개에 활용되는 재정정보 공개 수준(정보공개에 활용되는 정보의 양, 공개되는 정보의 주기 등)과 관련하여 인지하고 계신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정정보 공개 방법(재정정보 제공 파일형식, 공개 매체, 콘텐츠 개발, 접근성 등)과 관련하여 인지하고 계신 문제점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정보공개포털인 '열린재정'과 관련하여 인지하시는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재정정보공개 개선방안

1. 재정정보공개 정보 수준과 관련하여 개선방안(ex)추가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정보공개주기의 강화 등을 3가지 내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선방안 1 :

2. 개선방안 2 :

3. 개선방안 3:

2. 재정정보 공개 방법(재정정보 제공 파일형식, 공개 매체, 콘텐츠 개발, 접근성 등)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을 3가지 내에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선방안 1 : 2. 개선방안 2 : 3. 개선방안 3:
3.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정보공개포털인 '열린재정'과 관련하여 인지하시는 개선방안을 3가지 내에서 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선방안 1 : 2. 개선방안 2 : 3. 개선방안 3:

Ⅲ. 재정정보공개 장애요인

1. 재정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수준(주기, 정보의 양)을 제고와 관련하여 인지하고 계시는 장애요인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재정정보 활용

1.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분석·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평소에 느끼시는 불편한 부분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

발 간 월 2018년 12월
발 행 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편 집 재정정보연구본부 재정운영지원팀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인 쇄 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문의: 재정정보연구본부 재정운영지원팀 02)6908-8582
jungwoo1088@kpfis.kr

© 한국재정정보원, 2018